

KDB DAEWOO DAILY

2012. 12. 10 (월)

코스피지수 (12/7)	1,957.45P(+7.83P)
코스닥지수 (12/7)	489.22P(+1.19P)
KOSPI200지수 12월물	259.35P(+1.80P)
중국상해종합지수 (12/7)	2,061.79P(+32.55P)
NIKKEI225지수 (12/7)	9,527.39P(-17.77P)
원/달러 환율	1,081.70(-1.30)
국고채 수익률 (3년)	2.81(-0.02)
유가(WTI) (12/8 06:31)	86(-0.23)
국내주식형수익증권(12/6)	691,286억원(-170억원)
해외주식형수익증권(12/6)	265,882억원(-356억원)
고객예탁금(12/6)	167,998억원(-4,232억원)
신용잔고(12/6)	42,364억원(-188억원)

시황전망

소외주의 반란

주간 경제포커스

미국 연준, QE 발표로 재정긴축 대응 예상

채권시황

금리상승 압력 누적, 주의구간 진입

Weekly Money Flow

관심지표

산업분석

정유화학[비중확대] - 박연주: 중국이 돌아서면 화학주를 사야할까?

기업분석

SK하이닉스[매수] - 송종호: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성 확대!

주체별 매매동향

KOSPI200 선물시장 통계

주가 지표

소외주의 반란

IT와 더불어 소외주였던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회복세 지속 전망

지난 주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이다. 이들 섹터가 올해 내내 부진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난 주의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결론적으로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세가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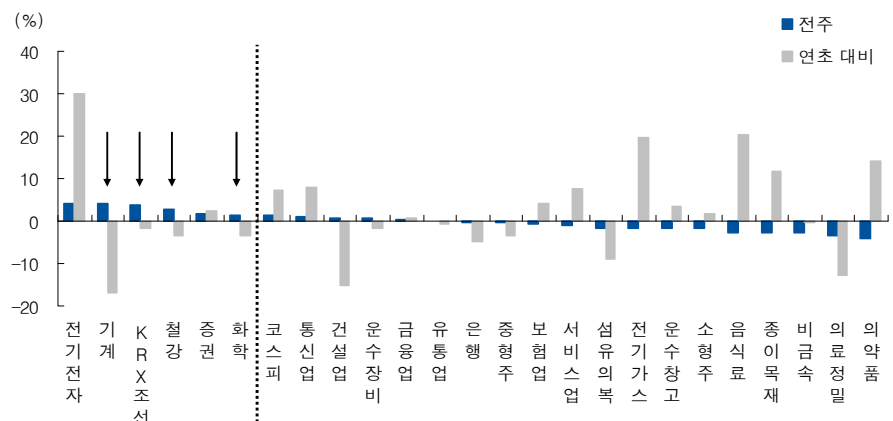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에 걸쳐 올해 매수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투신은 올해 내내 매도기조를 나타냈다. 따라서 최근의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에 있어서는 외국인보다 투신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올해 큰 화두가 되었던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관련주가 대거 포진한 오락문화와 디지털컨텐츠 업종에서 9월 이후 강한 매도세를 나타낸 동시에 통신장비, 정보기기에 이어 최근의 반도체까지 스마트폰 관련주를 사들이고 있다.

소재와 산업재의 반등은 중국의 경기지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난 8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중국 PMI지수는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규수주의 증가세와 완제품재고의 하락세는 향후 재고 사이클 측면에서 회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바, 소재와 산업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국내 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진정되는 가운데, 투신의 매수세로 유동성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투신의 매수여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IT섹터를 제외한 기존의 주도업종에 대한 매도를 통해 보유비중도 낮고 회복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철강과 화학, 조선과 기계 등의 업종에 대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투자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1. 굳건한 IT와 소외주의 반란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굳건한 IT와 더불어 나타난 소재와 산업재의 반등

굳건한 IT와 더불어 나타난 소재와 산업재의 반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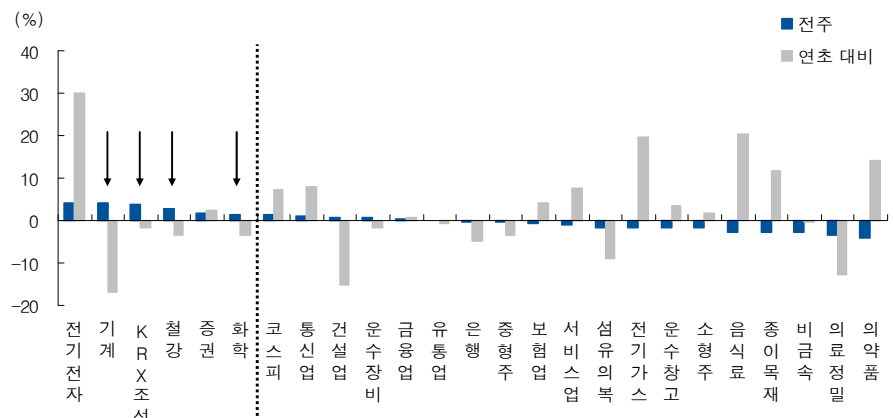
코스피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연 삼성전자의 주도력이 돋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이다. 이들 섹터가 올해 내내 부진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난 주의 흐름이 지속될 것인지 궁금해진다. 결론적으로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세는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부터 점검해 보자. 코스피와 코스닥 주요 업종별 연간 수익률과 지난 주 수익률을 보면, 전기전자와 코스닥에서는 부품 등 스마트폰 관련 업종의 주도력이 여전히 돋보인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 때문이다.

반면,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등 코스닥 주도업종은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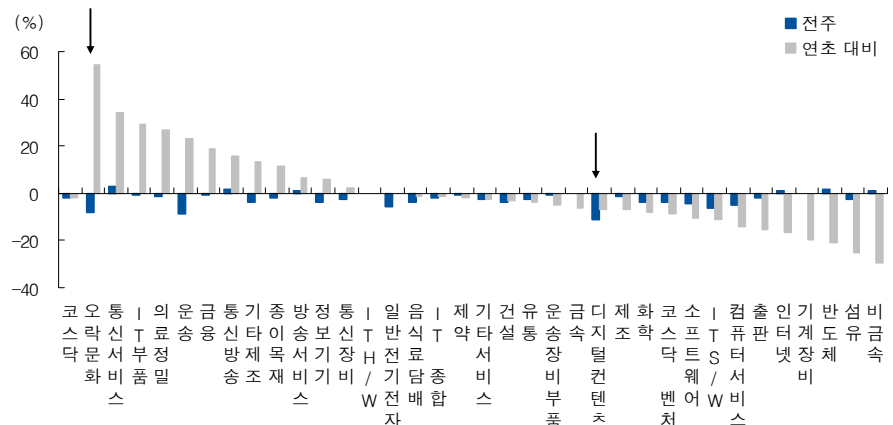
그리고 연초 대비 수익률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지난 주 코스피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은 기계, 조선, 철강, 화학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을 주도했던 오락문화와 디지털컨텐츠는 지난 주 크게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심지어 디지털컨텐츠는 지난 주의 부진으로 인해 연간 수익률마저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그림 2. 코스피 주요 업종별 수익률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코스닥 주요 업종별 수익률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최근의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에는 투신의 영향력이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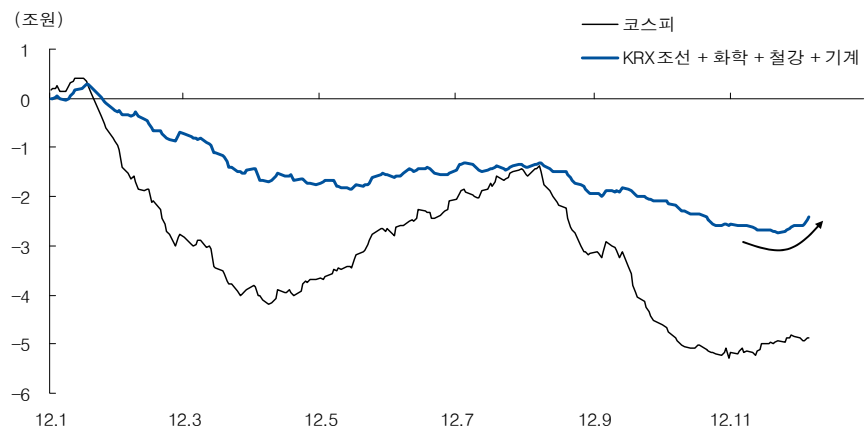
소외주의 반등과 코스닥 주도주의 하락은 특히 투신의 영향이 커

소재와 산업재의 반등에 있어 중요한 투자주체는 외국인과 투신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에 걸쳐 올해 매수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투신은 올해 내내 매도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최근의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반등에 있어서는 외국인보다 투신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올해 투신은 코스피에서 5조원, 코스닥에서는 6천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코스피에서의 5조원 순매도 중 절반은 철강과 화학, 조선과 기계 업종에서 나타났다. 최근 주식형펀드에서의 환매가 진정되면서 투신의 매도세도 진정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주도주에 대한 매도세와 더불어 소재와 산업재에 대한 매수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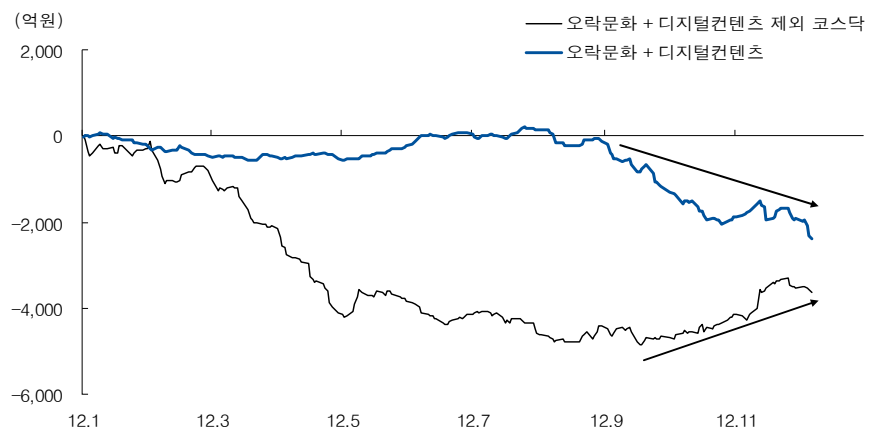
반면 코스닥에서는 올해 큰 화두가 되었던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관련주가 대거 포진한 오락문화와 디지털컨텐츠 업종에서 9월 이후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투신은 통신장비, 정보기기에 이어 최근의 반도체까지 스마트폰 관련주를 사들이고 있다.

그림 4. 코스피 및 철강과 화학, 조선과 기계 업종의 투신권 순매수 누적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오락문화와 디지털컨텐츠 및 이를 제외한 코스닥시장의 투신권 순매수 누적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소재와 산업재의 반등은 중국 경기지표 회복의 영향

투신권의 매수여력이 크지 않아 코스닥 주도업종의 매도를 통해 주도업종 매수에 나설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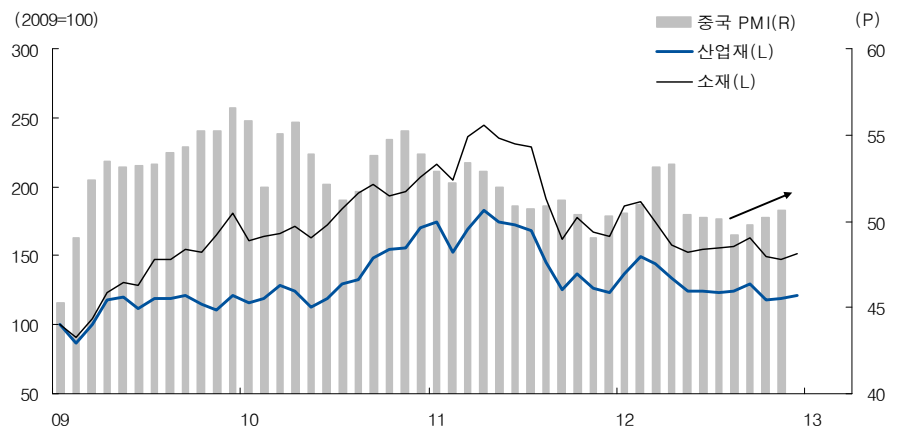
철강과 화학, 조선과 기계 등의 업종 비중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이 요구

IT섹터의 강세는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주된 이유이다.

반면 최근 **소재와 산업재의 반등은 중국의 경기지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난 8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중국 PMI지수는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규수주의 증가세와 완제품재고의 하락세는 향후 재고 사이클 측면에서 회복 가능성을 암시하는 바, 경기 측면에서 국내 소재와 산업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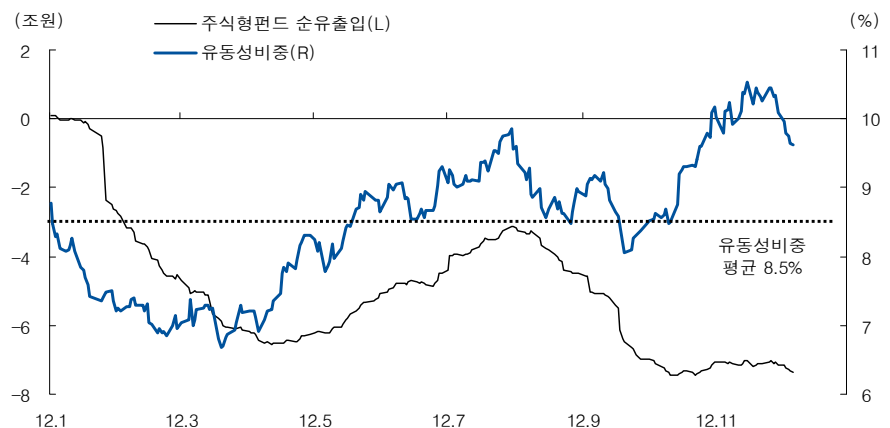
국내 주식형펀드에서의 자금이탈이 진정되는 가운데, 투신의 매수세로 유동성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투신의 매수여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IT섹터를 제외한 기존의 주도업종에 대한 매도를 통해 보유비중도 낮고 회복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철강과 화학, 조선과 기계 등의 업종에 대한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투자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6. 중국 PMI와 MSCI한국 소재 및 산업재 섹터 지수추이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주식형펀드 순유출입누적 및 유동성비중



자료: 한국펀드평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연준, QE 발표로 재정긴축 대응 예상

미국 재정절벽 협상 시기 예측하기 어려우나, 연준의 QE 발표가 시간을 다소 벌여줄 전망

11월 미국 신규고용이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고용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성장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확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12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만회할 1) 국채 매입 정책이나 2) 긴축을 위한 성장률과 물가 등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이 고려 대상이다. 현재는 1)의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통화정책 완화를 예상하는 이유는 1) 재정 긴축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양당간 재정절벽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내년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2) 고용 시장의 구조적인 회복(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신호도 아직 부족하다. 3) 인플레이션은 큰 위험이 아닐 것이다. 글로벌 상품 수요 회복이 강하지 못하고 오바마 정부는 비전통 에너지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연말까지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 동안 미뤄졌던 수요(특히 설비투자)가 내년 초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절벽 협상이 계속 지연될 경우 3분기 증가한 재고 소진과 투자 부진에 따라 내년 1분기까지 경기는 별다른 모멘텀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심리지수 하락은 이미 이 같은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은 13~14일 정상회담에서 그리스 2차 구제금융과 ECB의 은행감독권 집중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가 마지막 쟁점이다.

그림 1. 유로화 가치, 유럽 위기 완화와 미국 QE 영향으로 박스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고용시장
예상보다 양호

미국 11월 고용 예상치 상회

11월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되었다. 11월 신규고용은 전월보다 14만6천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8만명을 크게 상회했다. 그러나 9~10월 고용 실적이 5.1만명 하향 조정되면서 서프라이즈 결과를 다소 희석시켰다. 실업률 또한 7.7%로 하락해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예상(10월의 7.9%를 유지) 보다 양호했다.

3분기 이후 미국 고용 증가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소비를 중심으로한 미국 경기 회복세도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2분기 미국 고용이 월평균 6만명 증가에 그쳤다면 3분기 이후에는 월 평균 16만명 가량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 월평균 고용 증가 속도 17만명 수준과 근접한 것이다.

고용 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가 재정절벽 영향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을 상당부분 만회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유럽 경기 침체 폭을 만회해주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지탱하는데 상당한 힘을 보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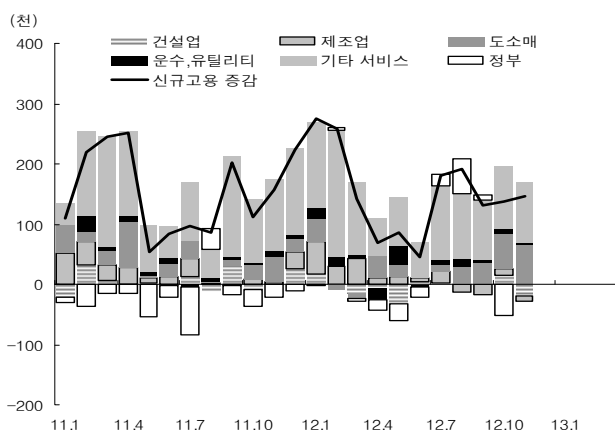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주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도소매업 고용이 6.6만명 증가해 작년 4월 이후 최대 폭 늘었으며 사업서비스 고용은 임시직 고용이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4.3만명 증가해 전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제조업, 정부 고용은 부진했다. 제조업 고용이 2만명 줄어 5월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고 지난달 반등했던 건설업 고용도 7천명 다시 감소했다. 정부 고용은 1천명 줄어 지난달 5.1만명 감소 대비 감소 폭은 줄었다.

실업률 하락은
추세적으로 보기 어려울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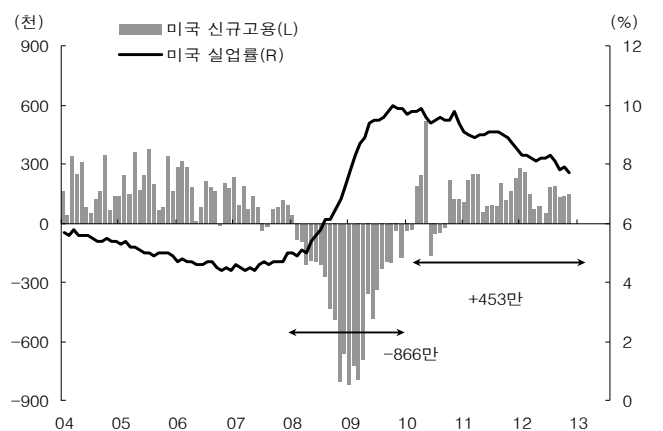
실업률 하락은 추세적으로 보기 어렵다. 실업률 하락은 구직 포기자가 35만명 큰 폭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줄어든 효과로 보인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허리케인 샌디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고 발표했으나 날씨에 따라 구직을 포기한 근로자 수가 이례적으로 많아 이는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미국 고용, 연초 수준은 못 미치나 하반기 안정적인 증가세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실업률도 2008년 12월 이후 최저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재정절벽 우려로

미국 경제지표는 혼조세

미국 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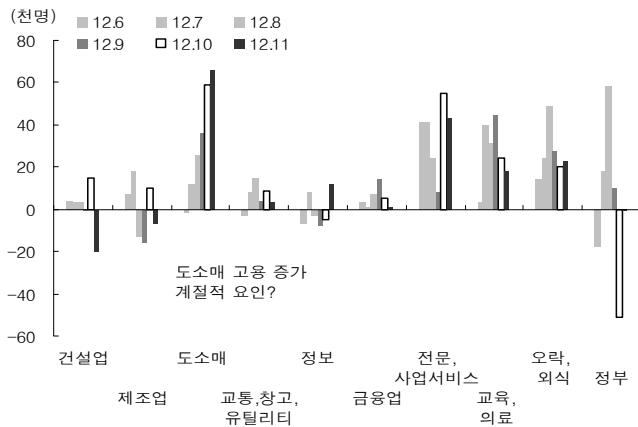
더 가속화되지는 못할 듯

고용 회복에도 재정절벽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 여전

그러나 현재의 고용 증가가 재정절벽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ISM 제조업지수와 소비심리지수가 예상 보다 악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 여전히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ISM 지수의 고용 지표들이 11월 모두 하락했는데 고용 증가가 여기서 더 강화되지는 못할 것이다.

특히 미국 고용 회복을 주도한 미국 소매업 고용의 경우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계절적인 현상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소매업 고용은 2개월 연속 5만명 이상의 증가를 나타냈는데 2000년대 이후 2011년까지 5차례에 불과했다.

그림 4. 미국 계절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내년 초 소멸 예상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미국 기업 체감지수는 재정절벽 우려를 반영하는 중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연준

추가 QE 발표 예상

재정 긴축에

선제적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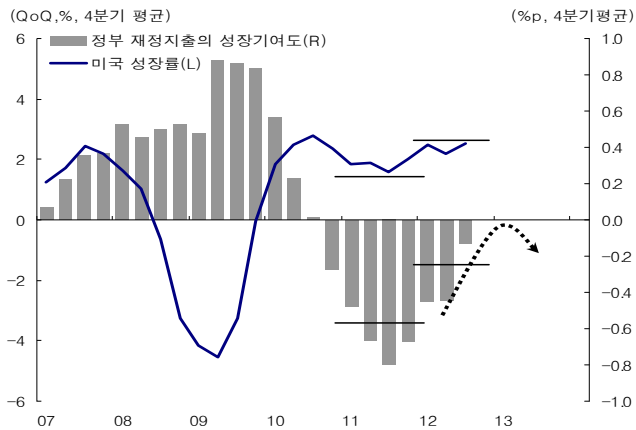
연준 QE 발표로 재정절벽 협상에 시간 버는 동시에 재정긴축 위험에도 대응 예상

당사는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보다 안정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국채 매입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를 앞두고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유지시키고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 하강 위험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절벽 논의가 새로운 경기 부양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7천억 달러 범위내에서 정부지출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재정절벽 합의가 되더라도 내년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올해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 패턴은 정부지출 확대와 상당히 연동되어 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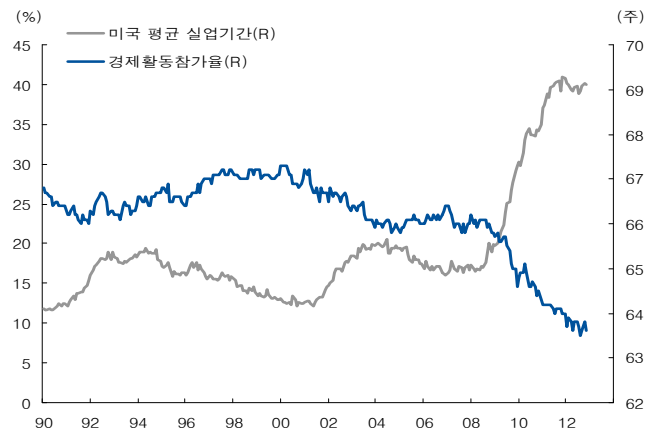
또한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다. 고용시장 측면에서는 장기 실업자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QE를 중단하거나 장기금리 상승을 용인하기에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다.

그림 6. 미국 재정지출 논의, 어쨌든 정부 기여를 줄이는 논의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미국 구조적인 문제 해소 때까지 QE는 지속 예상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1. 주간 경제 지표 및 이벤트 일정

일정	국가	경제지표	단위	예상치	이전치
10일(월)	한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비%	-	0.2
	중국	11월 무역수지	십억\$	26.8	31.9
	중국	11월 수출	전년비%	9.0	11.6
	중국	11월 수입	전년비%	2.0	2.4
	일본	10월 경상수지	십억엔	230.9	503.6
10~11일	미국	U.S. President Obama Speaks about the Fiscal Cliff			
11일(화)	유로	12월 ZEW 경기지수	Index	-	-2.6
	미국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Index	92.5	93.1
	미국	10월 무역수지	십억\$	-42.5	-41.5
	미국	10월 도매재고	전월비%	0.4	1.1
12일(수)	한국	11월 실업률(계절조정)	%	3.1	3.0
	한국	10월 M2	전년비%	-	0.1
	유로	10월 산업생산	전년비%	-2.4	-2.3
	미국	11월 수입물가지수	전월비%	-0.5	0.5
	미국	12월 FOMC 이사회	%	0.25	0.25
	미국	11월 재정수지	십억\$	-150	-137
12~13일	유로	EU, 유로존 재무장관회담			
13일(목)	한국	12월 금융통화위원회	%	2.75	2.75
	미국	11월 소매판매	전월비%	0.5	-0.3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370	370
	미국	10월 기업재고	전월비%	0.4	0.7
13~14일	유로	EU 정상회담			
14일(금)	한국	11월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	-6.4
	일본	4Q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Index	-	-3
	중국	12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Index	-	50.5
	유로	12월 PMI 종합	Index	46.9	46.5
	유로	12월 PMI 제조업	Index	46.6	46.2
	유로	12월 PMI 서비스	Index	47.0	46.7
	유로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2.2	2.2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비%	-0.2	0.1
	미국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0.2	-0.4
주중	중국	경제공작회의			
	중국	11월 신규 대출	십억위안	550.0	505.2
	중국	11월 M2	전년비%	14.1	14.1

주: 해당일 미국 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익일 새벽 발표일정을 포함

금리상승 압력 누적, 주의구간 진입

글로벌 경기개선 진행 중, 그렇지만 아직 확인과정 남아 있어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분위기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유럽 금융시장은 안정심리를 거의 회복한 모습이다. 우리는 올 4분기까지 글로벌 경기여건의 바닥 다지기가 좀 더 진행된 이후 2013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맞물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금리와 증시 등 주요 가격지표들의 상승은 아직 본격화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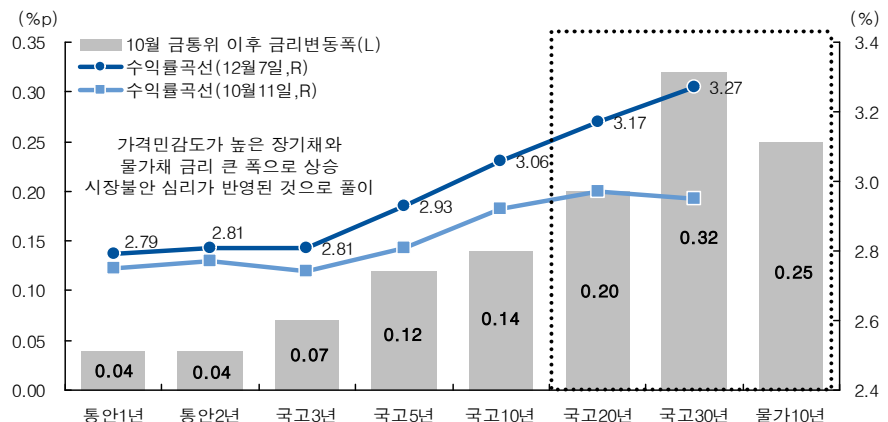
그러나 곧 정치적 타협이 도출될 경우 그 동안 눌러있던 채권금리가 먼저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및 고평가 해소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분기를 지나면서 글로벌 실물경기를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일부 걷히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채권투자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누적되는 금리상승 부담감, 지금부터 채권투자는 주의구간으로 판단

우리는 연간전망을 통해 2013년 2분기까지는 국내 채권금리가 30~40bp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조건이 완성되는 2013년 1월 금통위까지는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강조했다. 아직 남아 있는 대외불확실성과 국내 실물경기 안정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1차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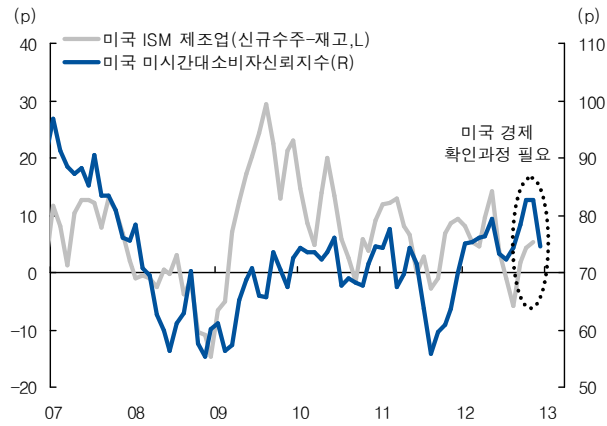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 좁은 박스권 상단에 머물면서 금리상승 압력이 누적되는 채권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채권투자는 주의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부터는 금리하락 시 듀레이션 축소와 헷지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10월 금통위 이후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진행, 채권시장 긴장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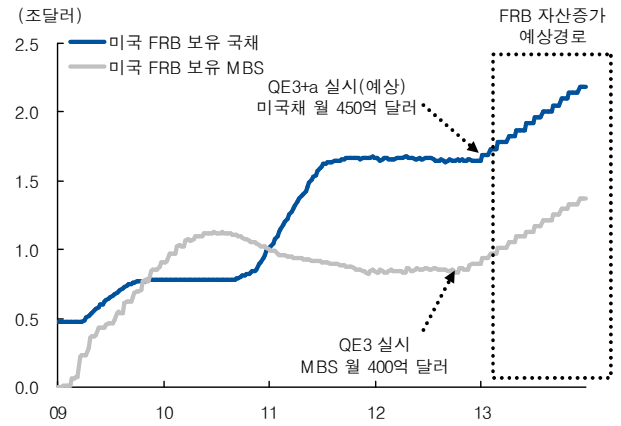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그림 1. 미국 경제에 대한 확신 아직 자신하기 이른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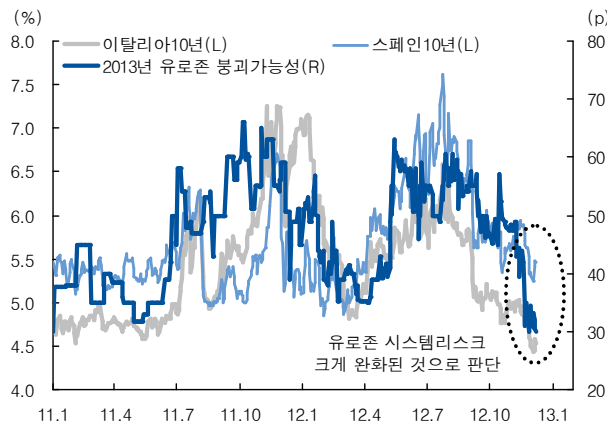
자료: ISM, Thomson Reuters

그림 2. 12월 FOMC에서 연준 추가 정책동원 기대 높아



자료: US FRB

그림 3. 유로존 불안심리 크게 개선, LTRO 실시 당시보다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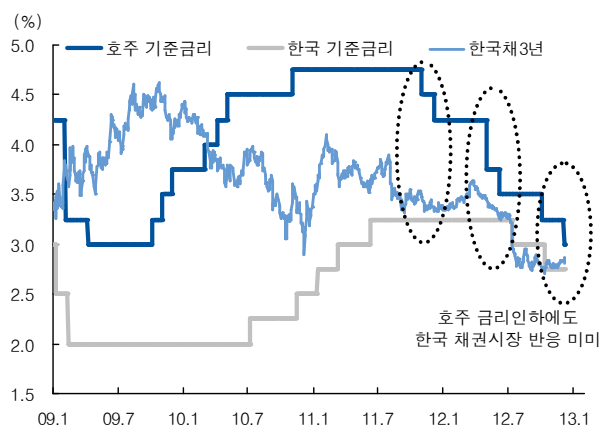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ntrade

그림 4. 중국 증시 반등, 한국 채권시장에 부담요인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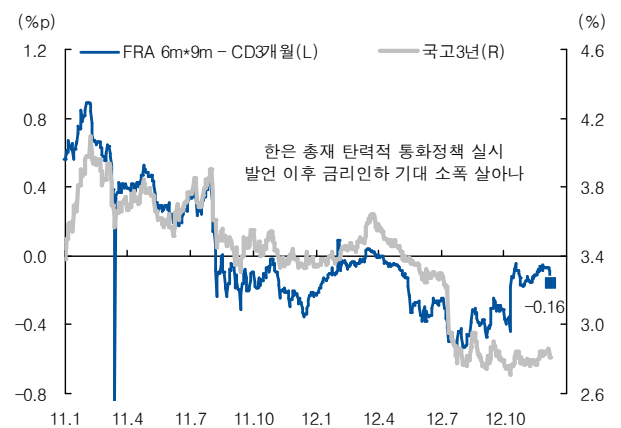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5. 호주 금리인하에도 한국 채권시장 별다른 영향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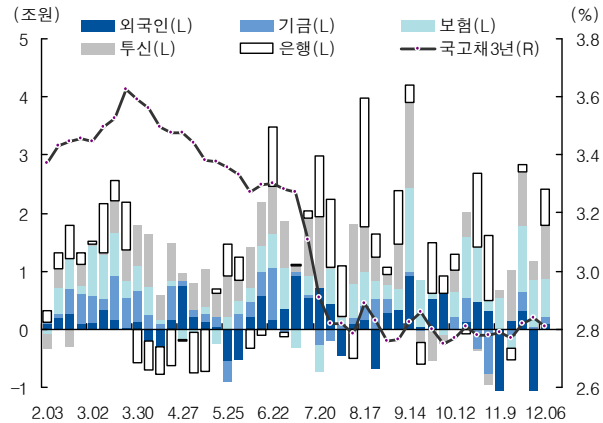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6. 한국 통화정책, 1차례 인하기대는 아직 유지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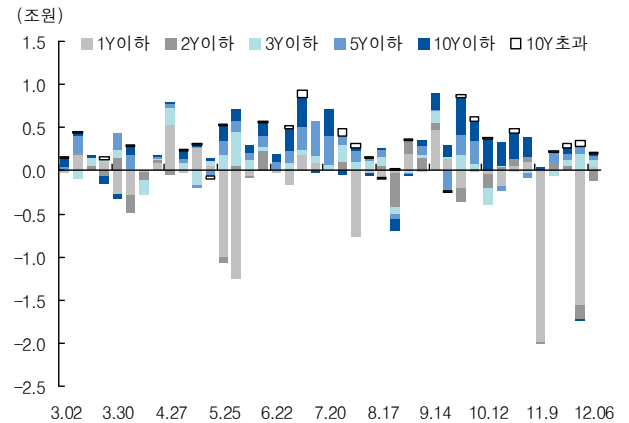
그림 7. 주간 주요 투자주체별 국채 순매수 추이



주: 12월 6일(목)까지 데이터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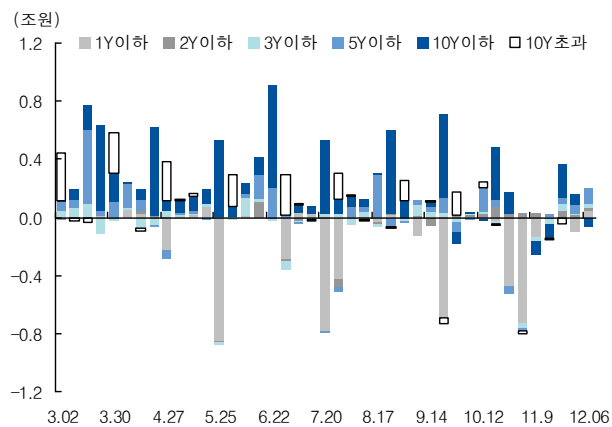
그림 8. 주간 외국인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주: 12월 6일(목)까지 데이터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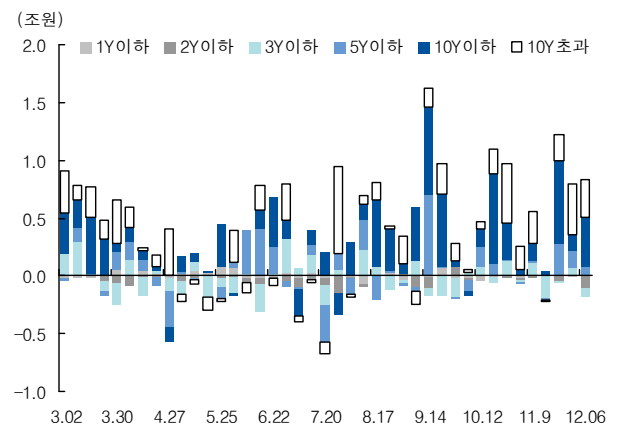
그림 9. 주간 연기금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주: 12월 6일(목)까지 데이터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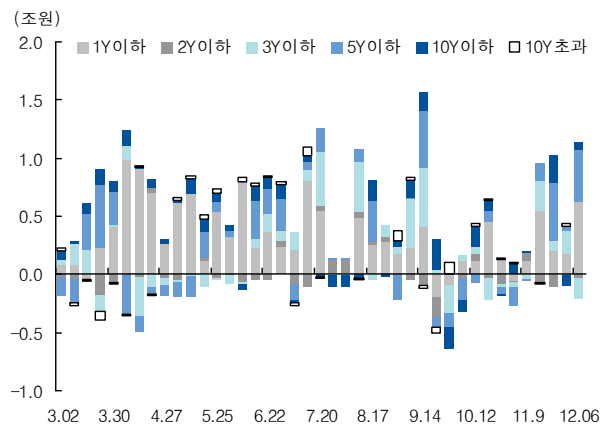
그림 10. 주간 보험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주: 12월 6일(목)까지 데이터

자료: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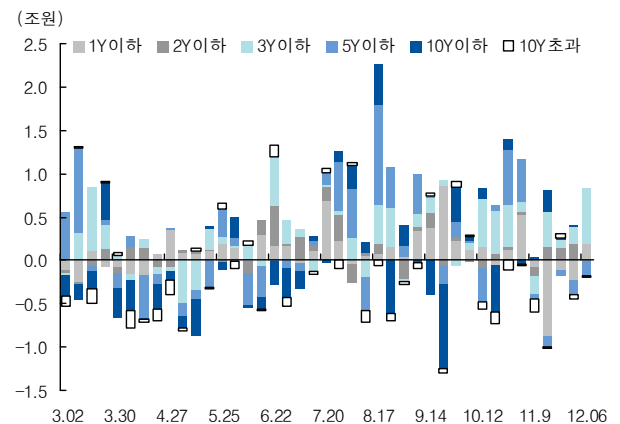
그림 11. 주간 투신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주: 12월 6일(목)까지 데이터

자료: 연합인포맥스

그림 12. 주간 은행 국채 만기별 순매수 추이



주: 12월 6일(목)까지 데이터

자료: 연합인포맥스

예상보다 건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여건

아직 본격적인 금리상승
시점은 아니나 주의구간 진입

미국 경제지표 바닥 다지기
정치적 타협시점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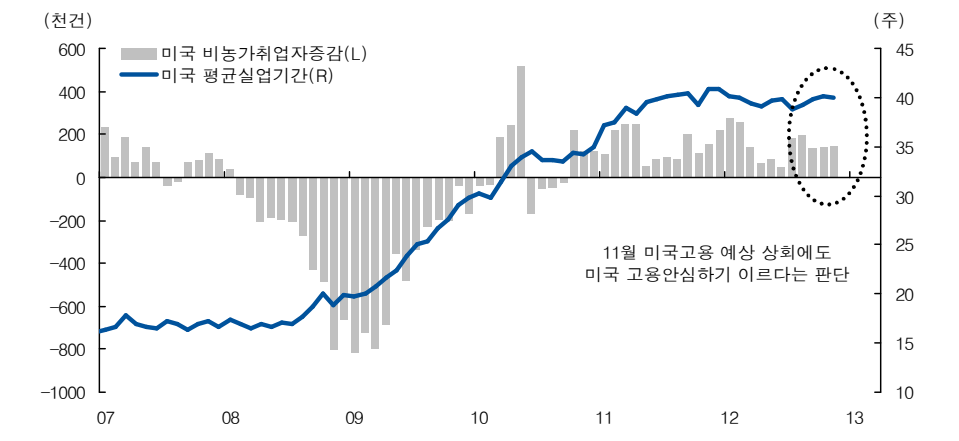
글로벌 경기개선 진행 중, 향후 재료 확인 이후 위험관리 필요성 부각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분위기는 건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예상을 상회하고, 유럽 금융시장은 안정심리를 거의 회복한 모습이다. 우리는 올 4분기까지 글로벌 경기여건의 바닥 다지기가 좀 더 진행된 이후 2013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맞물려 미국과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금리와 증시 등 주요 가격지표들의 상승은 아직 본격화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곧 정치적 타협이 도출될 경우 그 동안 눌러있던 채권금리가 먼저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및 고평가 해소에 나설 것이다. 2013년 1분기를 지나면서 글로벌 실물경기를 둘러싸고 있던 안개가 일부 걷히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채권투자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부터 채권투자는 위험관리가 필요해 보이며, 재료를 확인한 이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주 미국금리는 혼조세를 나타낸 경제지표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재정절벽 문제로 인해 박스권 하단에 머물렀다. 예상을 하회한 11월 ISM 제조업 지수와 재정절벽과 관련 진전이 없다고 밝힌 공화당 하원의장의 발언은 미국채 10년 금리를 1.5%대로 끌어내렸다. 하지만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 11월 미국 비농가취업자증감은 14만6천 건을 기록했고, 실업률이 7.7%로 떨어지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금리는 다시 1.6%초반으로 올라왔다<그림 13>.

그림 13. 11월 미국고용 예상상회, 그렇지만 안심하긴 일러



자료: US B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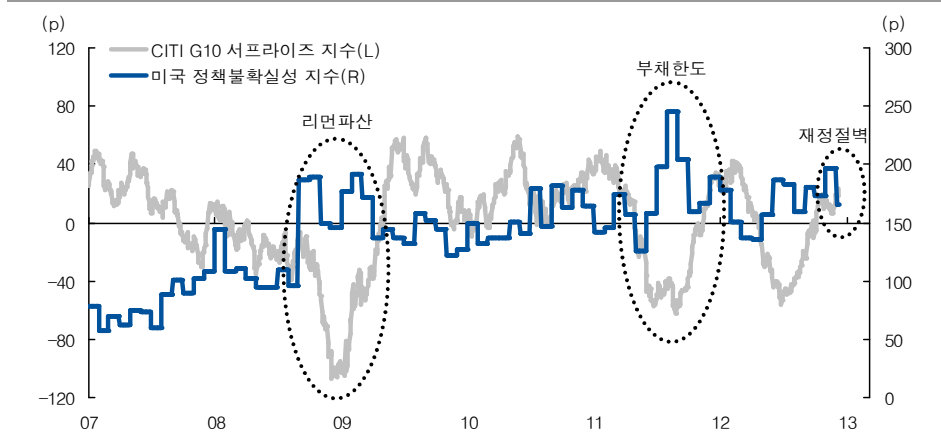
이번 주 FOMC 추가 정책 실수 여부도 주목해야

11월 미국고용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9월과 10월 지표는 역으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여전히 높은 평균실업기간과 경제활동참여율 하락 등으로 갈 길이 먼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12월 미시간대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 82.7p에서 74.5p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경제 바닥 다지기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그림 1>. 이러한 이유로 이번 주 12일(수)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는 이달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할 정책(QE3.5 혹은 QE3+α)이 등장할 것으로 본다<그림 2>. 연준의 정책실시 기대가 높아 현재 미국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할 때, 정책이 실시 이후 미국채 시장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12월 FOMC를 주목하자.

유럽과 중국의 가격지표 반등 역시 채권부담 요인

한편, 유럽은 스페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Intrade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3년 유로존 붕괴가능성은 201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상반기 LTRO 실시 당시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다<그림 3>. 여기에 중국은 지난 주 상해종합지수가 2천 선을 단숨에 회복하며 반등하는 등 국내외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림 4>. 대외여건의 본격적인 개선은 아니나, 지금부터 채권시장은 긴장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림 14. 남아 있는 재정절벽 이슈까지 확인이 필요



: Bloomberg, PolicyUncertainty

국내 역시 본격적인 금리 상승은 아니나 위험관리 필요

누적되는 금리상승 부담감, 지금부터 채권투자는 주의구간으로 판단

우리는 연간전망을 통해 2013년 2분기까지는 국내 채권금리가 30~40bp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조건이 완성되는 2013년 1월 금통위까지는 시장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강조했다. 아직 남아있는 대외불확실성과 국내 실물경기 안정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1차레 기준금리 인하기대가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최근 좁은 박스권 상단에 머물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누적되는 채권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채권투자는 주의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 시점부터는 금리하락 시 듀레이션 축소와 헷지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금리상승 압력 누적으로
가격민감도 높은 채권 조정
압력이 더 큰 것으로 풀이

지난 주 국고3년 기준으로 시장금리가 2.86%로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이탈했다. 중국증시 급등으로 외국인과 증권이 선물매도를 늘리면서 채권시장 불안심리가 확대되었다. 11월 말부터 1)10월 산업활동동향, 2)11월 소비자물가, 3)호주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국내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재료에 시장반응이 미미한 것을 보면서, 투자심리가 많이 약해진 것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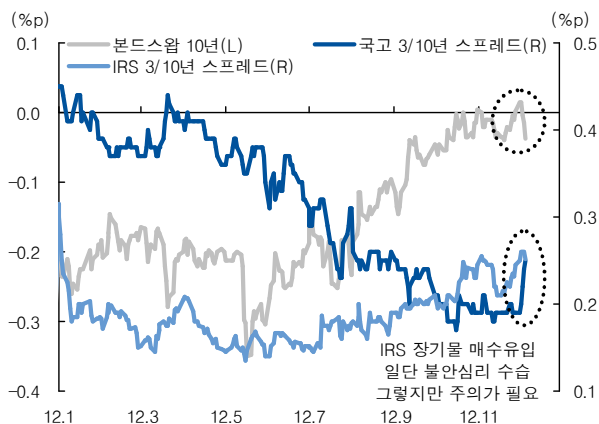
10월 금통위 이후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민감도가 높은 장기채와 물가채 약세가 두드러졌다<표지 그림>. 국고 3/10년 스프레드는 11월 말까지 19bp 정도였으나 7일(금) 기준으로 25bp까지 확대되었다<그림 15>. 그 전부터 IRS 커브가 먼저 확대되기 시작했고, 10년물 장기 본드스왑 또한 정상화까지 나오는 등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국채선물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20일과 60일선이 교차하면서 역배열이 나오는 등 조정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16>.

현 시점부터 금리하락 시
매도 및 헷지 수단 활용 필요

그렇지만 이전부터 우리가 강조했듯이 현 박스권 상단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1)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되거나 2)국내지표 개선이 두드러져야 하는데 아직 확실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7일(금)에 있었던 한은총재의 발언에는 '통화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발언이 금리인하 가능성으로 내비치지며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웠다. 최근 크게 위축되었던 FRA에 녹아있는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16bp 정도로 내려간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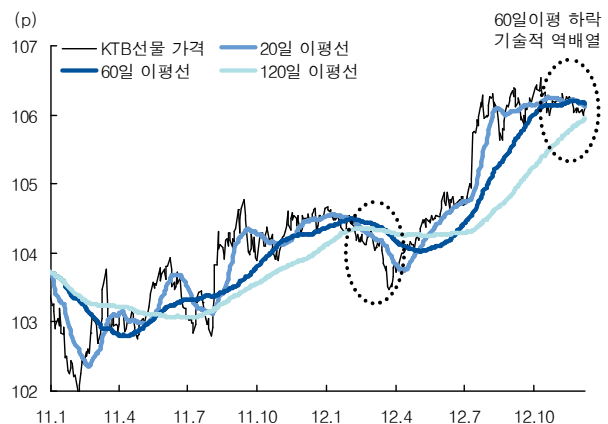
단, 주의할 점은 한은총재가 탄력적인 통화정책 이외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향후 확대될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통화정책은 정책여력을 확보하며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 시점부터는 금리하락 시 위험관리에 나서는 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그림 15. 장단기 스프레드 확대에 반영된 시장 불안심리



자료: 금융투자협회, KDB 산업은행

그림 16. 기술적으로 이평선 역배열 조짐, 주의해야 할 필요



자료: 금융투자협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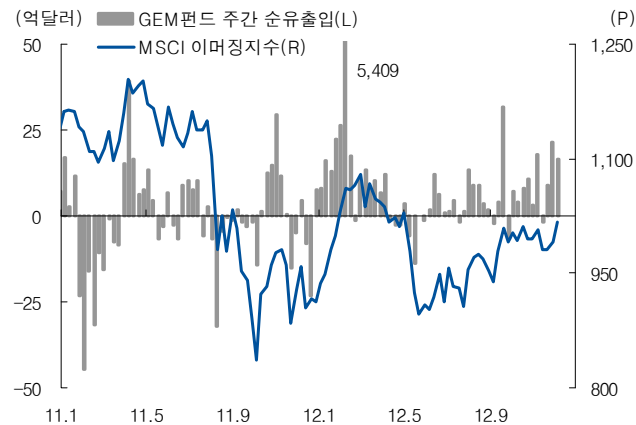
투자전략 한치환 02-768-3053 chihwan.han@dwsec.com

투자전략 노아람 02-768-4153 aram.noh@dwsec.com

주간 자금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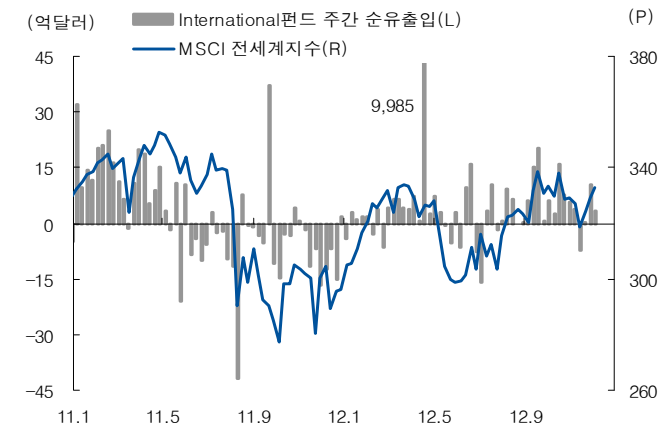
■ 글로벌 펀드 동향 – EMEA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펀드로의 자금유입 나타나

그림 1. 이머징마켓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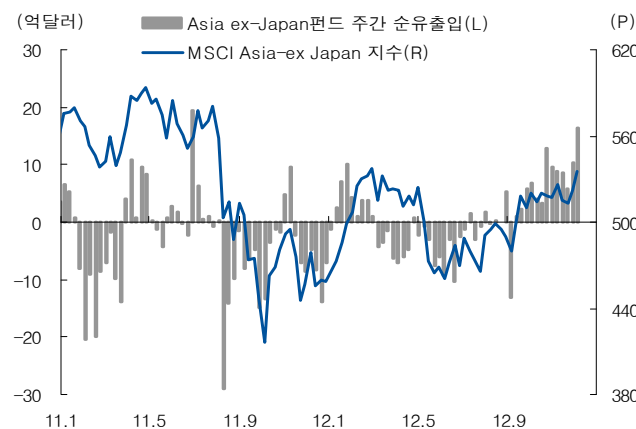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2. International 펀드(선진시장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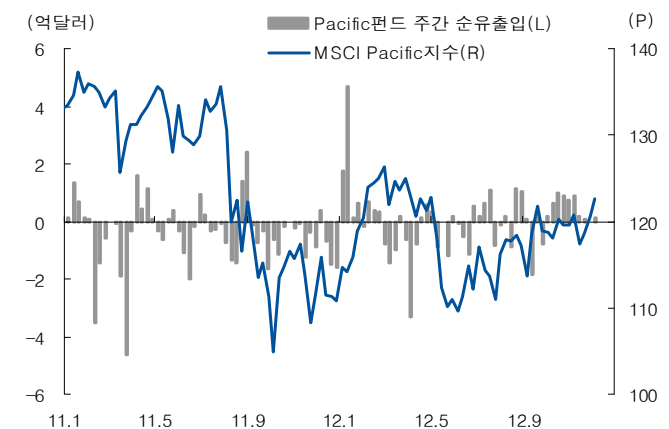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3. 일본제외 아시아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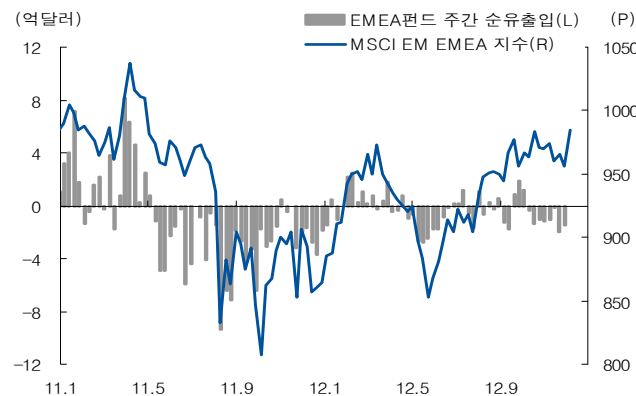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4. Pacific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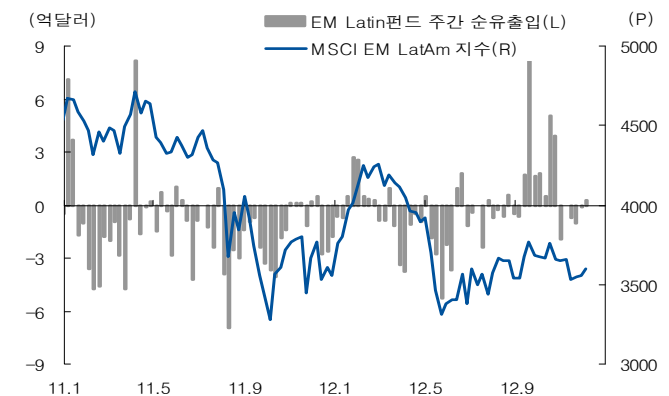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EPFR

그림 5. EMEA 펀드(Europe, Middle East, Africa)



자료: Thomson Reuters,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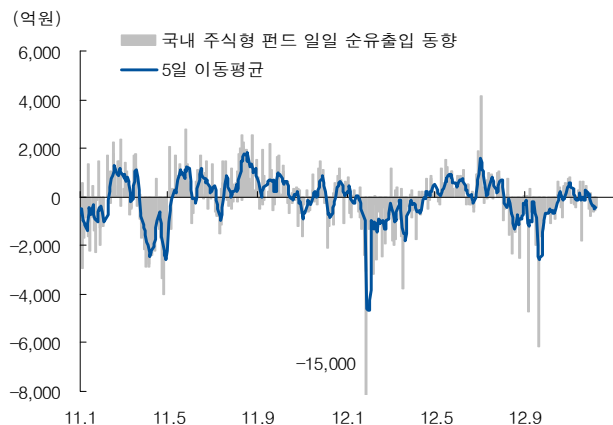
그림 6. EM Latin America 펀드



자료: Thomson Reuters, EP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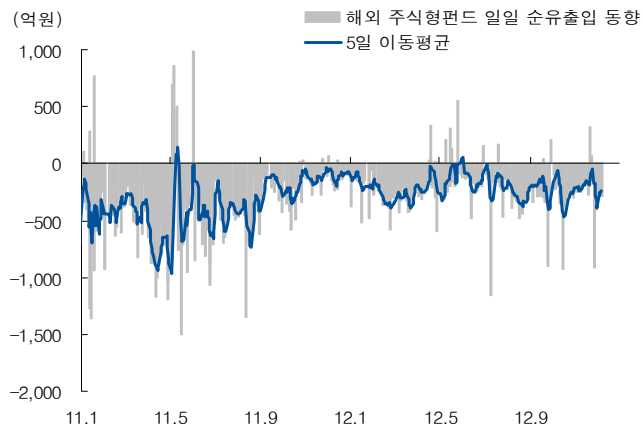
■ 국내 자금흐름 동향 –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유출세 지속

그림 7.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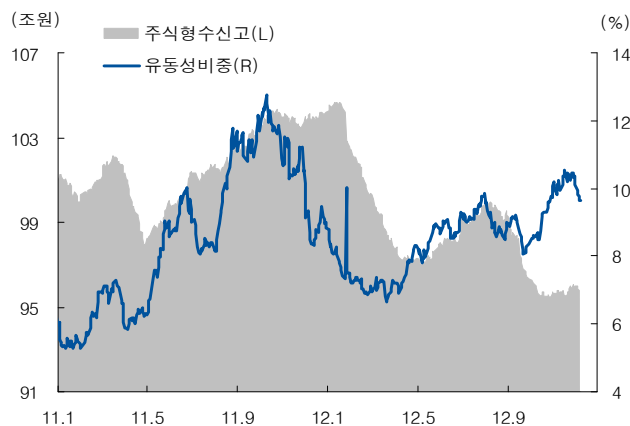
자료: 한국펀드평가

그림 8. 해외 주식형 펀드 자금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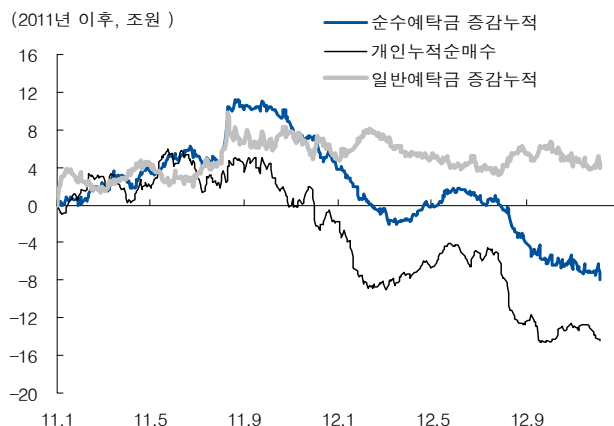
자료: 한국펀드평가

그림 9. 주식형펀드 수신고 및 유동성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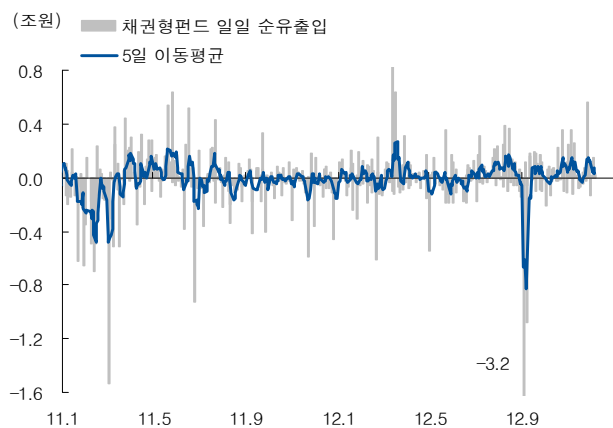
자료: 한국펀드평가, 금융투자협회

그림 10. 순수예탁금 및 개인누적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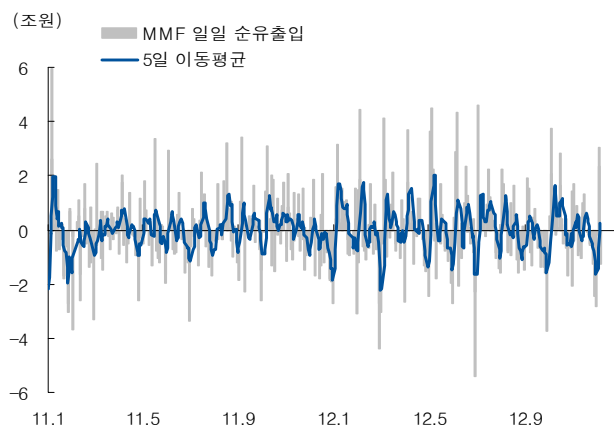
자료: 증권전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채권형펀드 일일 순유출입 동향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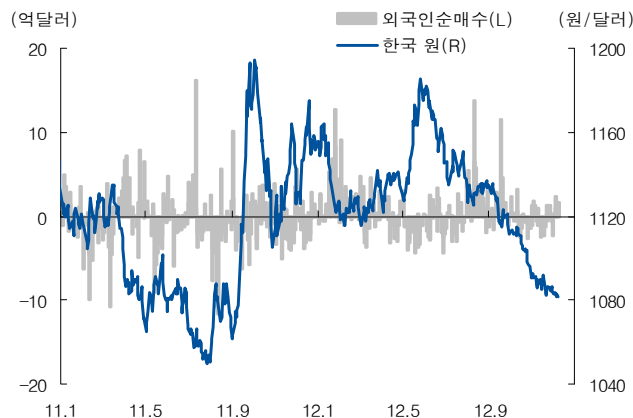
그림 12. MMF 일일 순유출입 동향



자료: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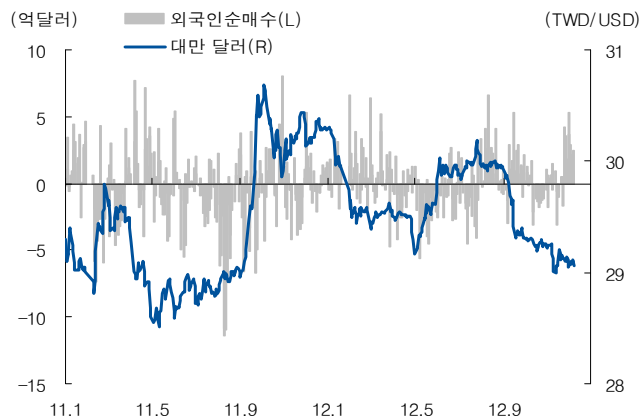
■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대부분 이머징아시아 국가로의 외국인 매수세 지속

그림 13.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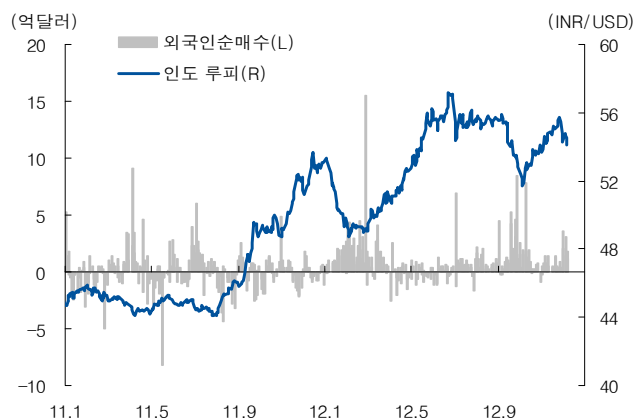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4.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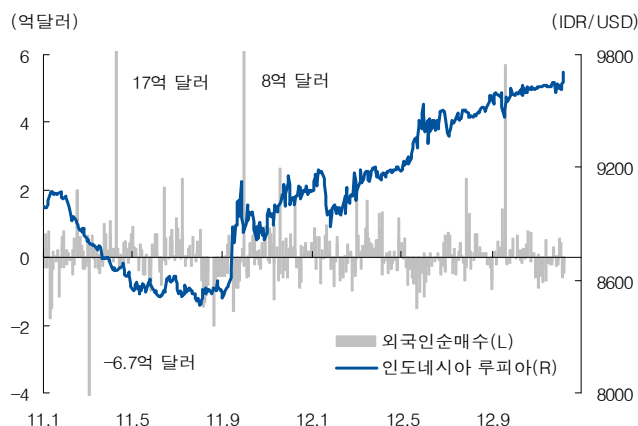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5.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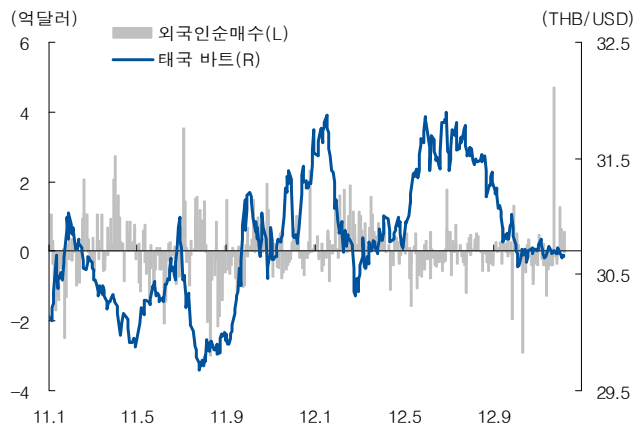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6.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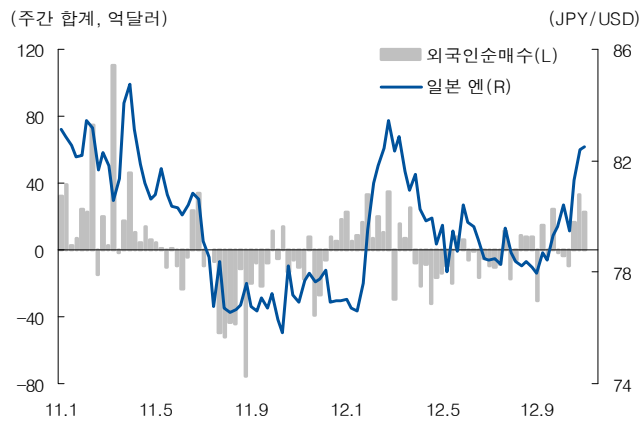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17.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태국



자료: Bloomberg

그림 18. 주요국 환율 및 외국인 순매수 동향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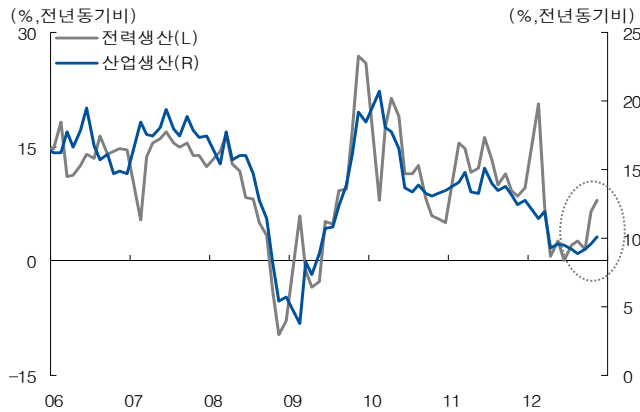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글로벌 경제 허재환 02-768-3054 jaehwan.huh@dwsec.com

최홍매 02-768-3439 hongmei.cui@dwse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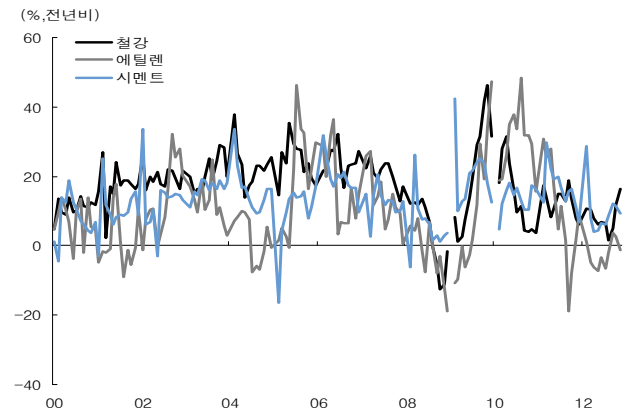
중국 4분기 성장률 상향 가능성 증가: 부동산과 경기 민감 소비재 회복 주도

그림 1. 실물경기와 밀접한 전력생산 증가율은 연속 2개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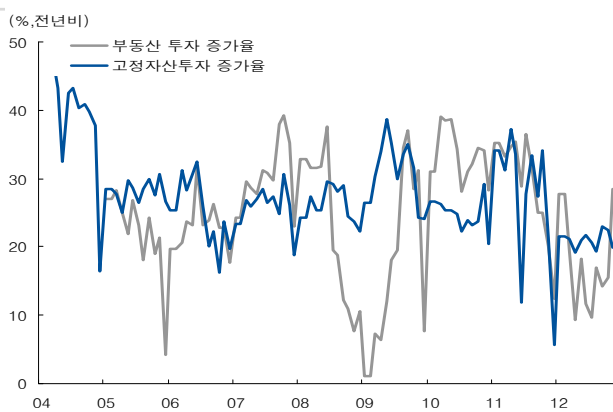
주: 1, 2월 값은 연초대비 누적치로 대체,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생산 증가는 철강 등 중공업업 중심에 이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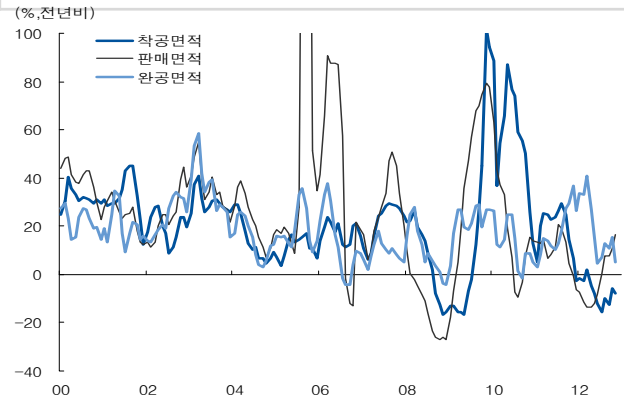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 중국 부동산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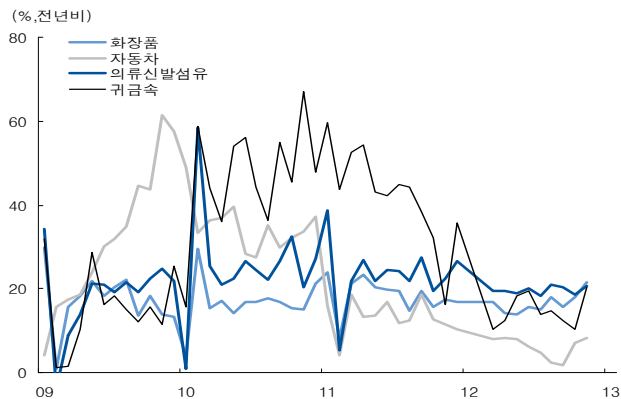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부동산 공급은 둔화 반면 판매 호조. 완전한 착공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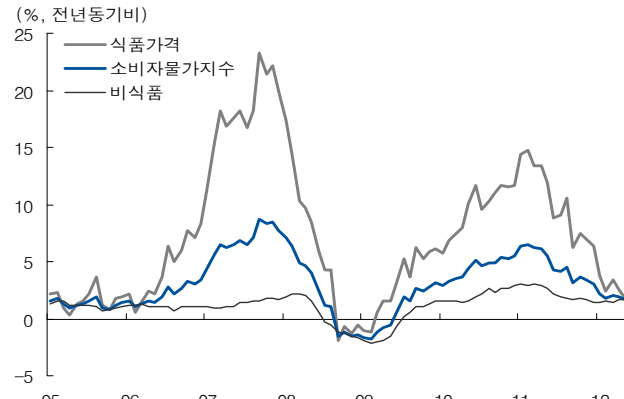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귀금속/화장품 등 소비 증가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바닥을 지난 듯



자료: CEIC, KDB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수요가 회복되어도 화학 제품의
마진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

중국이 돌아서면 화학주를 사야할까?

화학: 단기 모멘텀 개선 가능하나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

최근 일부 화학 제품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고 수준이 낮고 경제 지표 호조로 구매자들의 구매 의욕이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 춘절을 앞두고 재고 축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클 산업은 실적이나 밸류에이션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나 지금은 업황 개선의 폭과 속도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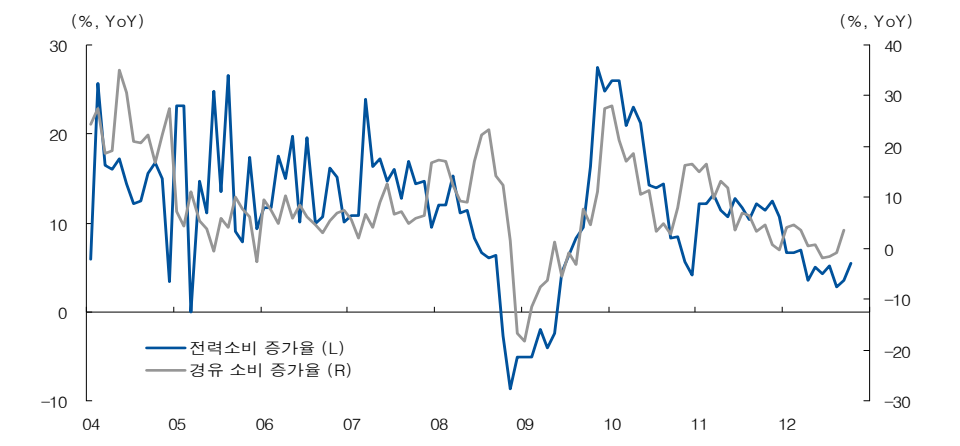
과거와 달리 잉여 설비가 많아 수요가 회복되어도 화학 제품 마진의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화학 제품 마진이 잉여 설비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면, 대표적인 제품인 HDPE 마진은 현재 대비 50에서 최대 100달러 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정도의 개선은 이미 컨센서스에 반영되어 있어 모멘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한다. 화학 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하고 LG화학을 선호한다.

정유: 마지막 고비를 지나는 중, 투자의견 비중 확대 유지

추가적인 생산 확대 여력은 적다

최근 정제 마진이 악화된 이유는 아시아와 유럽의 생산 차질이 해소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제 아시아/유럽의 생산 차질 규모가 과거 저점 수준까지 떨어져 추가적인 생산 확대 여력은 적다. 다음주 재가동 예정인 Motiva 설비만 가동되고 나면 정제 설비 증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약재는 마지막 고비를 지나는 중으로 판단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경기 회복으로 수요 개선이 기대된다. 최근 경유 마진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중국 수요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 업종에 대해 투자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SK이노베이션과 S-Oil을 Top Pick으로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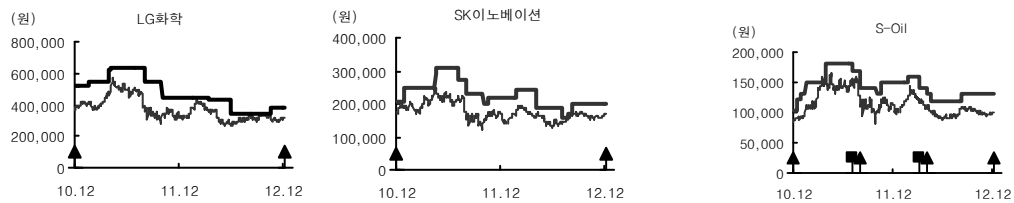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전력 소비 및 경유 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CEIC

▶ Compliance Notice

- S-Oil, LG화학, SK이노베이션: 회사가 LP업무를 수행하는 ELW의 기초자산 발행법인. S-Oil, LG화학, SK이노베이션: 회사가 발행한 ELW의 기초자산 발행 법인.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예상되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중립(±10% 등락), ◆중축소(10% 이상 하락)



SK하이닉스 (000660)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성 확대!

매수 (Maintain)

목표주가(원,12M)	33,000
현재주가(12/12/07,원)	25,900
상승여력(%)	27.4
EPS 성장률(12F,%)	적지
MKT EPS 성장률(12F,%)	10.1
P/E(12F,x)	-
MKT P/E(12F,x)	10.4
KOSPI	1,957.45
시가총액(십억원)	17,979
발행주식수(백만주)	694
60D 일평균 거래량(천주)	4,793
60D 일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7
배당수익률(12F,%)	0.0
유동주식비율(%)	74.2
52주 최저가(원)	19,750
52주 최고가(원)	30,950
베타(12M,일간수익률)	1.38
주가변동성(12M daily,%,SD)	2.5
외국인 보유비중(%)	24.6

주요주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외 4인(25.82%)

국민연금관리공단(8.08%)

주가상승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0.4	14.9	15.6
상대주가	-1.4	8.9	13.7

주요사업

DRAM과 NAND Flash 등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및 판매

What's New?: 4Q12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할 듯

SK하이닉스의 4Q12 실적은 매출액 2.7조원(+11.7% QoQ, +6.0% YoY), 영업이익 1,458억 원(QoQ, YoY 흑자전환)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기존 영업이익 추정치(1,200억원) 대비 소폭 상향하였는데, 주된 이유는 Product Mix 변화와 공정 전환에 있다. 1) 모바일DRAM 비중(DRAM 매출 기준)은 3분기 30% 초반에서 4분기에는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2) DRAM 38나노, NAND 20나노 비중은 4분기말에 각각 60% 후반, 80%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분기 DRAM, NAND bit 성장률은 모두 한자릿수 후반으로 예상된다.

Catalysts: Product Mix 변화와 PC DRAM 가격 상승

4분기 이후에도 Product Mix 변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추세라면 2013년 상반기 중으로 모바일DRAM 비중은 DRAM 매출의 50% 대에 안착할 것이다. 모바일DRAM의 가격 프리미엄은 PC DRAM 대비 120% 수준이다. 따라서 모바일 DRAM 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더라도,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추세가 유효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MCP(NAND+모바일DRAM) 수요 증가 역시 실적에 긍정적인 변수이다. MCP 매출 비중은 3분기 15% 수준에서 4분기에는 10% 후반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휴대폰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세와 동사의 수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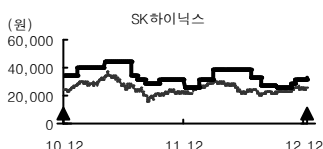
최근 PC DRAM 현물 가격의 상승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PC 수요의 큰 변화는 없지만, DRAM 업체들의 지속적인 감산으로 Commodity DRAM 시장은 이제 수급 균형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채널이나 모듈업체들의 재고 수준 역시 안정적인 상황이다. 2Gb DDR3 0.9달러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겠지만, 사실상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된다.

Valuation: 실적 턴어라운드 가시성 확대. 목표주가 33,000원으로 상향

2013년 실적은 매출액 12.5조원(+23.5% YoY), 영업이익 1.4조원(YoY 흑자전환)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1.2조원) 대비 약 10%를 상향하였는데, 역시 Product Mix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내년도 NAND 부문의 경우에는 SSD 매출 확대가

결산기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영업이익률 (%)	순이익 (십억원)	EPS (원)	EBITDA (십억원)	FCF (십억원)	ROE (%)	P/E (배)	P/B (배)	EV/EBITDA (배)
12/10	12,106	2,975	24.6	2,621	4,440	6,151	2,749	39.2	5.4	1.9	3.0
12/11	10,396	326	3.1	-57	-96	3,572	-1,126	-0.7	-	1.8	5.2
12/12F	10,151	-106	-1.1	-179	-258	3,132	-157	-2.0	-	2.0	7.0
12/13F	12,538	1,403	11.2	1,150	1,657	5,102	1,384	11.0	15.6	1.8	4.1
12/14F	14,429	2,004	13.9	1,727	2,488	5,767	1,259	14.5	10.4	1.5	3.4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순이익 /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SK하이닉스: 회사가 LP업무를 수행하는 ELW의 기초자산 발행법인. SK하이닉스: 회사가 발행한 ELW의 기초자산 발행 법인.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시장대비 상대이익 기준, 주가(—), 목표주가(=), Not covered(⊞), ▲매수(20% 이상), ■Trading Buy(10% 이상), ●중립(±10% 등락), ◆비중축소(10% 이상 하락) -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수가 될 것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의 31,000원에서 33,000원(2013년 예상 P/B 2.25배)으로 상향한다. 4분기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연간 실적 추정 상향을 고려하였다. 2013년과 2014년 ROE는 각각 11.0%, 14.5%로 턴어라운드 이후 중장기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표 1. SK하이닉스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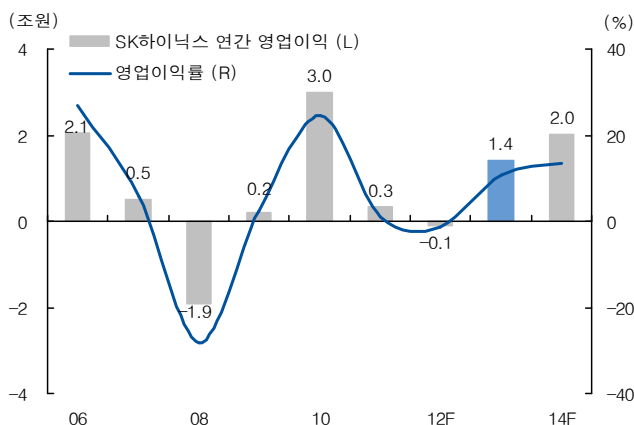
(십억원, %)

	1Q12	2Q12	3Q12	4Q12F	1Q13F	2Q13F	3Q13F	4Q13F	2010	2011	2012F	2013F
매출액	2,388	2,632	2,423	2,707	2,767	3,052	3,332	3,386	12,106	10,396	10,150	12,538
%QoQ	-6.5	10.2	-7.9	11.7	2.2	10.3	9.2	1.6				
%YoY	-14.5	-4.6	5.8	6.0	15.9	16.0	37.5	25.1	53.1	-14.1	-2.4	23.5
DRAM	1,695	1,974	1,696	1,854	1,889	2,054	2,169	2,176	9,554	7,418	7,220	8,288
NAND	693	658	703	853	878	998	1,163	1,211	2,552	2,978	2,930	4,250
매출원가	2,182	2,159	2,021	2,076	2,111	2,301	2,371	2,421	7,644	8,721	8,449	9,395
매출총이익	206	473	402	631	656	751	961	965	4,462	1,675	1,702	3,143
판매비	473	472	432	470	470	480	500	540	1,491	1,570	1,837	1,800
영업이익	-260	23	-15	146	196	291	481	435	2,975	326	-106	1,403
% QoQ	적지	흑전	적전	흑전	34.4	48.4	65.4	-9.5				
% YoY	적전	-94.9	적지	흑전	흑전	1164.3	흑전	198.5	1454.5	-89.0	적전	흑전
DRAM	-286	98	-11	75	110	201	302	306	2,792	-284	-124	919
NAND	19	-123	-19	86	76	69	159	119	179	389	-37	424
EBITDA	572	771	760	984	1,125	1,217	1,404	1,356	6,100	3,572	3,132	5,102
순이익	-271	-53	2	143	149	223	371	407	2,621	-57	-179	1,150
매출총이익률	8.6	18.0	16.6	23.3	23.7	24.6	28.8	28.5	36.9	16.1	16.8	25.1
영업이익률	-10.9	0.9	-0.6	5.4	7.1	9.5	14.4	12.9	24.6	3.1	-1.0	11.2
DRAM	-16.9	5.0	-0.7	4.1	5.8	9.8	13.9	14.1	29.2	-3.8	-1.7	11.1
NAND	2.7	-18.6	-2.6	10.0	8.7	7.0	13.7	9.9	7.0	13.1	-1.3	10.0
EBITDA 이익률	23.9	29.3	31.3	36.4	40.7	39.9	42.1	40.0	50.4	34.4	30.9	40.7
순이익률	-11.4	-2.0	0.1	5.3	5.4	7.3	11.1	12.0	21.6	-0.5	-1.8	9.2

주: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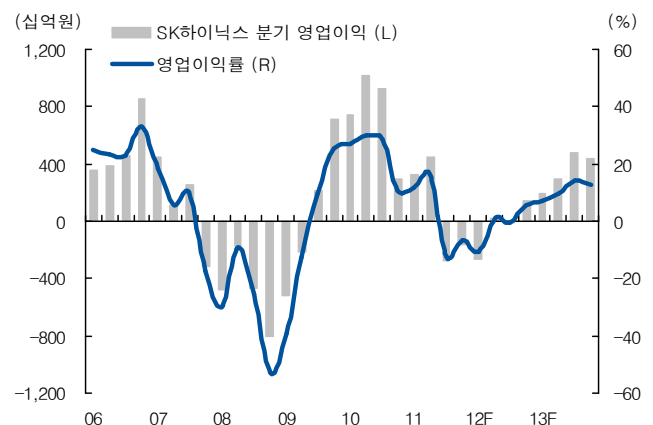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그림 1.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그림 2. SK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 추이와 전망



자료: SK하이닉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KOSPI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911.8 / 5일 -1226.0)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2022.8 / 5일 8083.2)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화학	415.3	567.5	서비스업	-274.7	-987.3	전기전자	1,357.0	3,122.6	철강금속	-141.6	-176.3
운수장비	413.7	630.1	전기가스	-256.4	-21.1	화학	491.3	578.7	운수창고	-129.4	293.1
철강금속	355.3	739.2	보험업	-103.5	-202.5	서비스업	283.5	1,099.5	운수장비	-94.7	1,611.8
전기전자	307.9	-2,001.3	유통업	-85.5	343.5	금융업	193.6	1,259.0	통신업	-48.0	17.6
금융업	110.4	-500.6	음식료	-82.8	65.3	전기가스	70.7	76.9	은행	-32.5	-14.8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KODEX레버리지	864.4	1,192.9	삼성전자	-401.6	-1,248.9	삼성전자	1,192.8	1,750.7	현대차	-211.1	11.2
SK하이닉스	459.3	-200.9	한국가스공사	-243.4	34.6	호남석유	257.4	133.8	POSCO	-193.8	-178.5
POSCO	379.0	506.9	KODEX 인버스	-221.2	-444.9	LG화학	174.4	424.9	삼성전자우	-158.3	213.2
삼성중공업	165.3	321.0	NHN	-184.5	-699.1	KODEX레버리지	164.7	62.8	LG생활건강	-101.7	-138.8
대우조선해양	159.0	256.6	기아차	-161.6	-305.0	NHN	162.2	142.1	현대모비스	-98.3	-46.6
현대중공업	156.1	42.3	고려아연	-134.9	-73.0	삼성중공업	123.3	250.9	대한항공	-76.2	30.0
S-Oil	121.8	-69.4	엔씨소프트	-79.5	-188.5	KODEX 200	120.0	195.1	SK텔레콤	-63.3	158.1
현대차	112.8	158.8	현대차2우B	-74.8	-148.2	LG전자	112.0	420.9	삼성생명	-58.6	18.8
GS건설	109.8	17.2	호남석유	-62.9	208.3	삼성전기	109.1	638.9	GS	-48.7	-34.9
LG화학	108.6	30.2	현대위아	-47.0	-143.3	하나금융지주	92.5	348.1	삼성물산	-47.4	-133.7

KOSDAQ 기관 및 외국인 순매매 상/하위 업종 및 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업종)			기관전체 (당일 -218.3 / 5일 -683.0)			외국인 (업종)			외국인전체 (당일 190.3 / 5일 -351.0)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순매매 상위	금액	5일	순매매 하위	금액	5일
반도체	40.2	-1.6	오락.문화	-86.0	-98.7	IT부품	62.1	64.3	의료.정밀기기	-28.5	54.7
운송장비.부품	30.2	63.6	IT부품	-82.9	-152.7	반도체	32.9	-31.5	디지털컨텐츠	-11.6	-193.1
기계.장비	12.2	47.2	디지털컨텐츠	-67.7	-631.5	제약	32.2	-109.3	기타	-7.8	-12.9
화학	11.8	-83.2	제약	-40.6	4.2	소프트웨어	24.0	-8.5	음식료.담배	-5.5	-9.2
통신장비	11.4	1.8	소프트웨어	-40.0	13.8	인터넷	17.5	65.9	운송장비.부품	-4.8	-24.5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국내기관 (종목)			외국인 (종목)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순매수	금액	5일	순매도	금액	5일
서울반도체	56.4	92.6	에스엠	-96.9	-32.2	파트론	23.6	14.9	네오위즈게임즈	-32.5	-149.2
성우하이텍	34.0	71.6	게임빌	-43.3	-189.3	다음	17.5	66.6	바텍	-21.0	5.4
제닉	12.0	-43.7	한국사이버결제	-26.2	-8.0	씨젠	13.6	10.8	멜파스	-15.6	45.9
세코닉스	9.8	4.7	멜파스	-24.3	21.5	EG	9.2	0.7	네오위즈	-13.6	-26.1
KH비텍	8.6	-8.6	플렉스컴	-16.8	-13.5	KG모빌리언스	8.2	8.1	휴비츠	-9.7	2.0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9	87.8	셀트리온	-15.5	114.8	옵트론텍	8.1	-5.4	성우하이텍	-8.2	-17.8
에스비엠	7.6	6.8	매일유업	-15.3	29.6	고영	7.2	2.7	매일유업	-6.8	-12.5
비에이치아이	7.4	5.5	메디톡스	-13.4	-18.1	에스엠	7.0	-127.3	루멘스	-5.9	-7.6
셀바이오텍	7.4	20.2	옵트론텍	-13.0	16.9	위메이드	6.8	-11.7	동국산업	-5.5	-6.4
이엔에프테크놀로지	7.2	10.1	JCE	-12.9	-50.6	에스에프에이	6.8	31.9	인터플렉스	-3.0	11.1

※ 본 자료 중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5일: 증권전산 CHECK 기준 (당일 제외, 이전 최근 5일), 당일 금액과 5일에서 (-)는 순매도를 의미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POSCO	20,323.8	삼성전자	-33,030.8	POSCO	13,550.0	현대차2우B	-7,578.5
SK하이닉스	19,904.5	한국가스공사	-23,384.2	SK하이닉스	10,638.3	NHN	-6,197.3
S-Oil	9,839.7	NHN	-9,759.8	대우조선해양	7,929.3	기아차	-5,447.3
현대미포조선	7,995.3	고려아연	-9,480.3	삼성중공업	7,834.9	삼성물산	-4,800.4
LG화학	7,876.3	아리랑 200	-8,871.7	LG전자	4,513.0	삼성전자	-4,411.8
SK텔레콤	7,414.5	파워 K200	-7,479.7	현대중공업	4,215.1	KT	-4,141.9
현대중공업	7,228.2	현대모비스	-4,167.8	신한지주	3,793.2	GS	-3,947.6
삼성증권	6,144.5	하나금융지주	-3,665.5	GS건설	3,349.6	현대모비스	-3,564.3
삼성중공업	5,420.5	삼성화재	-3,521.7	LG디스플레이	3,267.2	KT&G	-3,506.3
현대제철	4,789.9	LG전자	-3,483.3	한국가스공사	2,988.0	오리온	-3,348.4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T	2,217.5	엔씨소프트	-6,537.5	SK하이닉스	9,640.7	TIGER 200	-5,591.8
현대차	1,462.4	KODEX 레버리지	-4,396.3	제일모직	8,069.7	삼성전자	-4,488.1
SK이노베이션	1,400.1	현대상선	-4,284.4	POSCO	4,240.2	대한항공	-3,329.4
하나금융지주	748.2	삼성전자	-3,003.4	현대제철	3,756.5	현대차	-2,975.3
에이블씨엔씨	701.6	녹십자	-1,475.2	삼성엔지니어링	3,650.5	기아차	-2,964.4
고려아연	691.9	기아차	-1,342.4	LG디스플레이	3,339.2	KODEX 레버리지	-2,679.0
LG화학	662.6	제일모직	-1,236.0	대우조선해양	2,807.2	롯데쇼핑	-2,504.3
대우조선해양	571.4	TIGER 200	-937.7	GS건설	2,360.9	KT	-1,973.3
삼성전기	569.2	LG전자	-931.8	현대중공업	1,983.4	한국가스공사	-1,970.2
현대미포조선	552.0	KODEX 200	-768.9	삼성중공업	1,687.7	대림산업	-1,870.6

KOSPI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KODEX 레버리지	16,470.5	86,436.2	현대상선	3,252.4	4,354.0
SK하이닉스	8,737.6	45,929.4	오리온	1,289.8	4,078.6
삼성중공업	12,329.7	16,529.1	제일기획	1,666.7	3,463.0
현대중공업	1,975.2	15,608.7	녹십자	409.2	3,340.0
LG화학	17,436.2	10,860.1	현대그린푸드	439.8	2,535.1
현대제철	2,603.8	9,994.2	현대모비스	9,825.1	2,062.3
삼성엔지니어링	4,420.0	8,736.0	SK케미칼	496.5	1,901.9
제일모직	3,103.5	6,583.0	농심	2,130.6	1,217.6
우리금융	3,763.8	5,603.9	LG생활건강	10,166.0	943.5
LG전자	11,198.0	3,975.4	삼성물산	4,739.2	788.3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성우하이텍	2,432.0	에스엠	-3,494.9	CJ오쇼핑	2,474.2	매일유업	-997.6
제닉	824.9	게임빌	-1,787.9	에스엠	2,164.0	게임빌	-908.7
다음	822.9	위메이드	-1,485.8	서울반도체	1,607.1	파트론	-898.9
아바텍	807.8	KG이니시스	-1,271.2	성광벤드	603.0	플렉스컴	-787.1
서울반도체	794.0	한국사이버결제	-1,220.6	셀바이오텍	568.2	씨젠	-743.5
이라이컴	681.1	포스코엡텍	-1,199.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556.8	미래나노텍	-629.5
OC머티리얼즈	489.4	이녹스	-1,193.6	젬박스	550.9	농우바이오	-602.9
컴투스	399.9	멜파스	-1,151.1	포스코엡텍	499.3	메디포스트	-529.1
에스비엠	315.5	CJ오쇼핑	-1,093.1	포스코엡텍	488.8	GS홈쇼핑	-487.7
비에이치아이	307.6	네패스	-1,015.3	이오테크닉스	457.0	한국사이버결제	-475.2
은행				보험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컴투스	515.1	시그네틱스	-601.5	서울반도체	1,072.1	에스엠	-1,879.6
멜파스	479.6	바이넥스	-440.3	성우하이텍	632.8	JCE	-898.6
코오롱생명과학	287.0	한글과컴퓨터	-269.9	한글과컴퓨터	484.3	다음	-821.1
서울반도체	253.9	실리콘웍스	-243.4	GS홈쇼핑	408.4	메디톡스	-556.4
다음	230.9	인탑스	-233.4	SK브로드밴드	337.4	멜파스	-469.3
매일유업	218.9	잉크테크	-204.1	파라다이스	302.8	옵트론텍	-424.4
게임빌	205.9	에스엠	-153.5	KH바텍	290.8	골프존	-411.6
에스텍파마	166.2	뷰웍스	-129.9	뷰웍스	258.5	젬박스	-388.1
세코닉스	150.4	STS반도체	-93.5	비에이치	227.9	게임빌	-352.9
네오위즈	98.0	메가스터디	-75.4	태광	220.7	한국사이버결제	-326.3

KOSDAQ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매도 상위 종목

(단위: 백만원)

순매수			순매도		
종목	외국인	기관	종목	외국인	기관
서울반도체	600.4	5,641.3	멜파스	1,558.5	2,427.3
와이지엔터테인먼트	351.2	794.1	매일유업	684.6	1,525.2
에스비엠	64.5	758.4	JCE	280.8	1,294.8
컴투스	664.8	699.4	오스템임플란트	104.0	1,064.4
성광벤드	249.8	688.8	코오롱생명과학	167.6	969.1
KG모빌리언스	820.1	635.4	KG이니시스	281.4	728.4
이엠텍	422.4	501.1	인프라웨어	182.9	454.3
하나마이크론	440.3	363.7	루멘스	594.7	252.7
SK브로드밴드	409.3	353.5	동국산업	553.1	92.3
다음	1,748.5	83.3	네오위즈게임즈	3,247.6	11.7

※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그 밖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음

※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금액은 (-)를 생략한 수치임

KOSPI 주간 주체별 동향 (기간: 2012년 12월 3일 ~ 12월 7일)

(단위: 억원)

일자	KOSPI	투신	은행	보험	기타금융	금융투자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12. 12. 3	1940.02 (+7.12)	-279.2	-111.6	35.3	-30.4	-369.3	-1944.8	2725.6	-663.5	-103.4
12. 12. 4	1935.18 (-4.84)	-512.3	-30.1	29.0	-3.5	119.3	-933.9	951.4	25.8	-34.7
12. 12. 5	1947.04 (+11.86)	-67.8	-36.1	202.0	-56.8	-209.4	807.4	1368.0	-1619.5	-585.9
12. 12. 6	1949.62 (+2.58)	609.4	104.7	-326.3	-11.6	-232.2	-110.1	2129.2	-2070.1	40.9
12. 12. 7	1957.45 (+7.83)	-68.5	-131.3	58.9	-35.3	112.7	911.8	2022.8	-3044.7	151.9
합계		-318.4	-204.4	-1.1	-137.6	-578.9	-1269.6	9197.0	-7372.0	-531.2
(12. 11. 26 ~ 12. 11. 30)		905.0	475.4	746.5	-94.6	-614.9	9719.5	-1653.9	-8550.5	525.9

KOSPI 주간 기관 및 외국인 순매도/순매수 상위 20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KODEX 레버리지	1780.3	삼성전자	1914.7	삼성전자	3464.0	POSCO	373.3
POSCO	759.3	NHN	890.4	LG화학	559.1	LG생활건강	193.3
대우조선해양	364.5	LG전자	617.5	삼성전기	533.6	삼성물산	160.9
삼성중공업	363.8	KODEX 인버스	505.6	LG전자	506.4	대우조선해양	116.5
현대제철	356.4	기아차	459.7	기아차	492.2	현대홈쇼핑	100.4
SK하이닉스	340.4	KB금융	290.5	삼성엔지니어링	459.0	한국타이어	90.9
한국타이어	296.7	엔씨소프트	264.3	호남석유	414.4	한진해운	85.5
CJ대한통운	267.5	삼성화재	225.8	현대건설	377.3	GS	83.2
삼성물산	233.2	고려아연	212.0	KB금융	344.1	제일기획	79.8
LG상사	209.2	KT&G	160.8	NHN	324.6	오리온	79.4
LG디스플레이	198.3	하나금융지주	156.6	하나금융지주	300.9	LG유플러스	76.6
제일모직	175.1	현대위아	150.0	KODEX 200	274.6	케이피케이칼	74.4
현대모비스	173.0	에이블씨엔씨	148.1	삼성중공업	220.0	삼성카드	63.0
대림산업	170.0	한국가스공사	129.0	삼성SDI	207.0	제일모직	62.1
현대중공업	158.3	현대글로벌비스	127.0	현대중공업	193.1	대한항공	57.1
금호석유	157.7	KODEX 200	119.0	삼성화재	154.0	KT	57.0
케이피케이칼	144.0	대한항공	111.3	SK하이닉스	152.6	기업은행	56.9
현대홈쇼핑	132.6	대우인터내셔널	106.2	스카이라이프	148.2	근화제약	56.3
CJ	115.0	현대차2우B	96.7	KODEX 레버리지	147.3	두산중공업	55.0
삼성전기	109.7	현대건설	93.6	CJ대한통운	147.1	빙그레	50.9

KOSDAQ 주간 주체별 동향 (기간: 2012년 12월 3일 ~ 12월 7일)

(단위: 억원)

일자	KOSDAQ	투신	은행	보험	기타금융	금융투자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12. 12. 3	498.97 (-0.40)	-15.6	14.9	-21.3	-12.8	-8.2	-23.3	-137.5	54.3	113.8
12. 12. 4	502.71 (+3.74)	48.5	4.4	31.4	-27.3	-23.8	165.7	319.0	-495.7	14.2
12. 12. 5	496.50 (-6.21)	-154.0	-8.3	19.8	-19.5	-86.6	-251.0	-152.2	371.5	38.4
12. 12. 6	488.03 (-8.47)	-270.1	-59.6	-94.0	-29.0	-93.1	-624.1	-454.0	921.5	149.2
12. 12. 7	489.22 (+1.19)	-144.8	5.0	-32.5	-6.6	-81.9	-218.4	190.3	-146.2	169.0
합계		-536.0	-43.6	-96.6	-95.2	-293.6	-951.1	-234.4	705.4	484.6
(12. 11. 26 ~ 12. 11. 30)		-448.0	5.5	-101.3	-74.6	-406.9	-772.7	118.8	493.4	143.8

KOSDAQ 주간 기관 및 외국인 순매도/순매수 상위 20종목

(단위: 억원)

국내기관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서울반도체	150.1	컴투스	249.2	다음	91.0	네오위즈게임즈	184.3
성우하이텍	98.1	게임빌	202.9	에스에프에이	40.1	에스엠	148.9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3.1	에스엠	183.6	성광벤드	30.1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31.7
셀트리온	60.7	파라다이스	179.5	파트론	27.6	셀트리온	89.4
SK브로드밴드	53.1	씨젠	105.0	뉴웍스	26.2	네오위즈	39.5
골프존	39.5	JCE	63.5	씨젠	25.3	SBS콘텐츠허브	22.0
SBS콘텐츠허브	32.4	KG이니시스	57.3	멜파스	23.9	아바텍	22.0
CJ오쇼핑	29.3	이오텍	52.4	솔브레인	21.4	씨티씨바이오	21.6
셀바이오텍	27.6	파트론	47.4	덕산하이메탈	20.9	성우하이텍	21.6
청담러닝	23.5	한국사이버결제	37.9	CJ오쇼핑	18.8	매일유업	19.7
포스코엠텍	20.5	실리콘웍스	37.5	신화인터텍	18.4	KG이니시스	18.5
다음	19.4	위메이드	35.5	KG모빌리언스	17.3	바텍	17.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7.4	제닉	32.4	컴투스	14.5	파라다이스	15.5
세코닉스	14.4	AP시스템	31.4	하츠	14.3	메디톡스	15.3
아바텍	14.3	네오위즈인터넷	31.2	원스텍넷	14.0	루멘스	13.8
에스비엠	14.1	메디톡스	31.0	메가스터디	13.0	동국산업	11.9
매일유업	13.9	플렉스컴	27.5	씨앤케이인터	12.5	와이지엔터테인먼트	11.6
화일약품	12.8	CJ E&M	23.8	차이나킹	12.4	JCE	11.1
젬백스	12.6	네패스	21.2	고영	12.0	GS홈쇼핑	10.5
씨티씨바이오	12.5	옵트론텍	21.0	슈프리마	11.6	휴비츠	9.7

당일 선물 시황은 새벽 미 증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선물옵션 모닝브리프'를 참조할 것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투자정보>투자전략>AI/파생

주가지수선물 가격 정보

	KOSPI200	1212	1303	1306	KSPGCH3S
기 준 가 격	257.27	257.55	256.65	257.65	-0.95
시 가	257.75	257.90	256.90	258.45	-1.00
고 가	259.42	259.65	258.65	258.65	-0.95
저 가	257.63	257.80	256.90	258.35	-1.05
종 가	258.78	259.35	258.35	258.65	-1.05
전 일 대 비	1.51	1.80	1.70	1.00	-0.10
이 른 가 격	-	258.92	258.14	259.74	-0.78
총 약 정 수 량 *	66,889	160,713	1,463	15	2,982
총 약 정 금 액 **	3,217,397	20,823,494	188,891	1,938	771,465
미 결 제 약 정	-	106620 (672)	12874 (1063)	1184 (15)	-
배 당 지 수 ***	2.85% (CD금리)	0.00	2.62	2.86	-
반 응 배 수		1.03	0.98	0.17	
장 중 평 균 베 이 시 스		0.431			
전 일 대 비		0.246			

주 : 단위 (* 천주, 계약 ** 백만 *** 포인트)

반응배수 = 일중 선물가격변동폭/일중 현물가격변동폭, KSPGCH3S : 12월물과 3월물과의 스프레드를 의미함
장중 평균 베이스는 1분 평균이며, 만기일일의 경우 전일대비는 직전 최근월물과의 비교이므로 의미없음

주가지수선물 투자자별 매매현황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 수	73,590	45,689	38,124	676	1,612	426	1,088	986
	매 도	67,977	48,812	39,965	350	2,066	269	926	1,826
	비 중	43.6%	29.1%	24.1%	0.3%	1.1%	0.2%	0.6%	0.9%
순 매 수 누 적	전 일	5,613	-3,123	-1,841	326	-454	157	162	-840
	누 적	3,209	-3,415	-1,440	-6	2,596	-1,616	1,104	-431
매 매 편 향 강 도		3.96%	-3.30%	-2.36%	31.77%	-12.34%	22.59%	8.04%	-29.87%

주 : 누적은 지난 트리플위칭데이 이후부터 현시점까지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의 증감을 누적한 것임

매매편향강도(%)=(순매수/(매수+매도))X100, 절대수치가 클수록 단방향으로의 집중력이 높다는 의미임

ETF 가격정보

	전일대비	등락율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보유		KOSEF	KODEX200
KOSEF	195	0.76%	57	1,478	0.00%	NAV (ETF-NAV)%	25,933	25,987
KODEX200	150	0.58%	2,132	55,254	5.39%		0.01%	-0.31%
	KOSEF	KODEX200	합성현물	최근월물	합성선물	T/E	0.03%	0.00%
증가/100	259.35	259.05	259.19	259.35	259.31	설정주수	0	0
eff.delta	1.29	0.99	2.86	1.19	2.85	환매주수	0	0
diff/basis	0.22%	0.10%	0.16%	0.57	0.53	상장주수	11500	163600

주 1 : effective delta(유효델타) = ETF등 전일대비 증감분/KOSPI200 전일대비 증감분

2 : 합성현물 = (C-P)+X exp[-rt], 합성선물 = (C-P)exp[rt]+X, 거래량, 설정-환매-상장 등의 단위는 천주

3 : 괴리/베이스스 - KOSPI200 대비 괴리율/베이스스, 거래대금의 단위는 백만원

4 : TE(tracking error)=[(NAV/(KOSPI200X100))-1]X100(%)

주가지수옵션 가격정보

대표 내재변동성	0.145	콜평균	0.142	풋평균	0.147	역사적 (5일)	6.2	역사적 (20일)	10.8
월물 행사가격		1212					01301		
		265.0	262.5	260.0	257.5	255.0	262.5	260.0	257.5
Call	가격	0.27	0.70	1.61	3.05	4.85	2.36	3.25	4.40
	전일 대비	0.06	0.20	0.50	0.86	1.15	0.46	0.62	0.70
	내재변동성	13.80	13.90	14.70	15.90	16.90	14.50	14.60	14.80
	거래량	268,558	322,401	310,622	72,414	15,274	1,733	1,455	709
	미결제	49,093	28,661	26,765	19,718	19,695	4,666	7,434	2,166
Put	가격	6.00	3.95	2.30	1.23	0.64	7.55	5.90	4.50
	전일 대비	-1.70	-1.50	-1.30	-0.96	-0.60	-1.20	-1.15	-1.05
	내재변동성	< 3.0	10.70	11.90	13.00	14.30	13.00	13.10	13.20
	거래량	2,780	8,227	110,264	164,910	231,005	67	321	798
	미결제	1,572	2,383	9,239	13,308	24,804	254	377	826

주 : 역사적 변동성, 내재변동성 등은 CHECK II 단말기를 기준으로 한 것임

주가지수옵션 투자자별 매매현황

Call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558,699	402,517	400,883	1,659	1,168	387	4,404	0
	매도	568,748	398,873	394,443	1,650	1,075	421	4,502	0
	비중	41.2%	29.3%	29.0%	0.1%	0.1%	0.0%	0.3%	0.0%
순매수 누적	전일	-10,049	3,644	6,440	9	93	-34	-98	0
	누적	9,632	45,694	-51,445	-5	-1,468	-324	-2,052	-28
Put		외국인	개인	증권	보험	투신	은행	기타법인	연기금
	매수	466,587	355,996	343,609	1,320	142	400	92	5,142
	매도	473,740	338,447	354,831	1,320	142	531	39	4,238
	비중	40.1%	29.6%	29.8%	0.1%	0.0%	0.0%	0.0%	0.4%
순매수 누적	전일	-7,153	17,549	-11,222	0	0	-131	53	904
	누적	22,224	72,175	-91,526	0	89	-690	-111	-2,161

주 : 누적은 직전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당일 순매수 미결제약정 증감을 누적한 것임.

차익거래 잔고와 프로그램 매매 동향

		주식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 CALL옵션		주가지수 PUT옵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차익거래 잔고 (백만원)	최근월물	6,026,212	10,425,120	10,482,930	6,024,054	-	-	-	-
	기타	-	-	-	-	-	-	-	-
	합계	6,026,212	10,425,120	10,482,930	6,024,054	0	0	0	0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주식 거래량		주식 거래대금	
		수량	비율(%)	금액	비율(%)	수량	비율(%)	금액	비율(%)
프로그램 매매 동향 (백만원)	차익	506	0.12	32,499	0.76	2,398	0.59	150,569	3.53
	비차익	18,379	4.50	537,181	12.58	17,827	4.37	609,659	14.28
	합계	18,886	4.63	569,680	13.34	20,226	4.96	760,229	17.80
베이스시스수준		0.575	0.475	0.375	0.275	0.175	0.075	-0.025	-0.125
차익성 순매수		26399	59702	29563	7040	-3525	-2067	0	0

주 : 월요일을 제외한 차익거래 잔고는 1일 지연된 데이터임.

유가증권시장			12/07 (금)	12/06 (목)	12/05 (수)	12/04 (화)	12/03 (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피지수		1,957.45	1,949.62	1,947.04	1,935.18	1,940.02
	이동평균	5일	1,945.86	1,940.95	1,938.00	1,931.15	1,929.15
		20일	1,911.14	1,908.49	1,906.73	1,906.26	1,905.91
		60일	1,939.09	1,938.96	1,938.47	1,938.10	1,938.00
	이격도	20일	102.42	102.16	102.11	101.52	101.79
		60일	100.95	100.55	100.44	99.85	100.10
	거래량		413,445	345,316	492,575	294,802	314,887
	거래대금		44,117.1	46,877.9	41,494.0	29,300.9	33,912.2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16	0.97	1.38	0.83
거래대금 회전율		0.39	0.42	0.37	0.26	0.30	
심리지표		60	60	60	50	60	
ADR		84.26	81.96	82.86	85.21	86.21	
이동평균		20일	83.36	83.62	83.64	83.48	83.20
		VR	146.07	115.23	89.67	67.45	83.93

코스닥시장			12/07 (금)	12/06 (목)	12/05 (수)	12/04 (화)	12/03 (월)
가격 및 거래량 지표	코스닥지수		489.22	488.03	496.50	502.71	498.97
	이동평균	5일	495.09	497.12	498.86	498.45	496.64
		20일	497.45	498.99	500.54	501.63	502.37
		60일	514.20	514.68	515.12	515.38	515.51
	이격도	20일	98.35	97.80	99.19	100.21	99.32
		60일	95.14	94.82	96.39	97.54	96.79
	거래량		365,740	361,832	430,561	353,742	350,223
	거래대금		19,670.9	20,198.4	21,429.5	16,677.5	16,257.6
	시장지표	거래량 회전율		1.78	1.73	2.06	1.69
거래대금 회전율		1.84	1.89	1.97	1.52	1.49	
심리지표		50	50	60	60	60	
ADR		78.40	79.20	82.53	82.73	83.90	
이동평균		20일	82.58	82.84	82.80	82.78	82.65
		VR	82.39	83.53	100.88	125.15	128.04

자금지표			12/07 (금)	12/06 (목)	12/05 (수)	12/04 (화)	12/03 (월)
국고채 수익률(3년)			2.81	2.83	2.86	2.84	2.84
회사채수익률(무보증3년)AA-			3.25	3.28	3.32	3.31	3.36
원/달러 환율			1,081.70	1,083.00	1,081.50	1,083.40	1,083.10
CALL금리			2.71	2.72	2.77	2.77	2.72
주식형(국내)			-	691,286	691,456	691,866	692,981
주식형(해외)			-	265,882	266,238	266,512	266,639
채권형			-	469,112	468,785	468,629	467,472
고객예탁금			-	167,998	172,230	176,410	179,080
고객예탁금 회전율			-	39.93	36.53	26.06	28.02
순수예탁금 증감			-	-4,452	-4,781	-4,327	8,627
미수금			-	1,043	1,105	1,058	1,138
신용잔고			-	42,364	42,552	42,606	42,925

단위: P, %, 천주, 억원 / 주: 고객 예탁금 회전율 = (거래대금/고객예탁금) x 100